

차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창립 20주년 축하 메시지

- 진짜 대한민국의 주춧돌 ‘홍범도 정신’ (박홍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3대 이사장/국회의원) 02
- 포용적인 기념사업,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운동으로 발전하길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대 이사장/대한민국 국회의장) 04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종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광복회 회장) 06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창립 20주년 회고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0년사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고문) 08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바로 세우기” 기획 특집

- 국군 정통성 수립을 위한 3대 사업 (한동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15
- 국군조직법 개정 발의 배경 및 진행 상황 (김광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7

2023-2025 특별기획

- 민족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7)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20

행사 참관기

- 홍범도 장군 순국 81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 학술회의 참관기 27
 - 한 초보 의병연구자가 만난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 (서태원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제작발표회에 다녀와서 (정우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청강문화산업대 교수) 29
-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참관기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31
 -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고문)

시민 기고

- 한 개인의 청산리 독립전쟁, 기증자료로 다시 살아나다 33
 - (김용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 박사 수료)

회원 기고

- 봉오동 전투 승전일을 ‘국군의 날’로 삼자 (김경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40

고려인 동포 소식

- 독립운동가 후손 청년조직 Doknip-Patriot 국제화상회의 후기 - 위대한 나무의 뿌리 (허올레그 김경천 장군 후손) 42
-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후원 소식-홍범도 장군은 우리 모두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44
 - (정영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대한고려인협회 회장)

2024년 사업보고 및 2025년 사업계획

46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53

회원동정

61

진짜 대한민국의 주춧돌 ‘홍범도 정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대 이사장,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봄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의 홍범도 장군
께서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모처럼 환하게 웃고 계시리라 믿습
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늦봄까지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지속되었
던 긴장과 대립의 시간이 멈추고,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
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나 이념·사상·진영에
얽매어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지 않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
된 나라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평생을 바쳐 소망했던 대한민국
입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은
새 정부가 순풍에 돛단 듯 거침없이 달려주기를 기원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의 이 질문은 80년 5월 광주를 휘감고 1920년
봉오동과 청산리까지 내달립니다.

5.18 민중항쟁의 피의 교훈이, 독립전쟁으로부터 국군의
뿌리를 찾고자 했던 몸부림이 시민들에게 장갑차를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킬 의지를, 군인들에게 소극적 저항의 용
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2021년 홍범도 장군을 고국으로 모셔 왔기에, 육사 내 생
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흉상을 설치하고 기렸기에, 80년 5

월의 군인들에게는 없었던 홍범도가 2024년 12월 군인들의
가슴속에 살아나 피와 죽음 대신 빛과 희망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홍범도 장군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이고 미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이념 전
쟁이 아닌 오직 민족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습니
다. 그리고 장군이 꿈꾼 나라는 왕정복고가 아닌, 힘없고 평범
한 이들이 차별과 억압 없이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홍
범도 장군의 정신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
들고자 하는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홍범도 정신’은 진짜 대한민국의 주춧돌입니다.

이러한 민족사적 사명 속에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는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홍범도 장군을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육사 충
무관 앞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토록 하고, 국군기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군이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계
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둘째, 홍범도 장군의 불굴의 애국혼이 공동체의 시대정신
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를 확대 정착시키고, 문화 공연,
추모행사, 학술회의 등 다양한 정신 계승 기획을 통해 장군의
삶과 투쟁이 국민 속에 날마다 새롭게 되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과 독립 영웅들
의 삶과 투쟁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칭)』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의병에 이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되새기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역사 왜곡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전쟁을 부정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뿌리와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의 극우적인 역사 인식이 계엄과 내란, 헌정 파괴로 이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홍범도들의 물려설 수 없는 전쟁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동지를 얻고, “조선을 지키는 우리, 끝내, 끝
끝내 이긴다”며 크게 외쳤습니다. (소설 ‘나는 홍범도’ 중)

동지 한명 한명이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희망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지키는 우리, 끝내, 끝끝내 이긴다”

감사합니다.



박 홍 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3대 이사장/국회의원)



“포용적인 기념사업,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운동으로 발전하길”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대 이사장/대한민국 국회의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창립 20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홍범도 장군의 위업을 기억하고 항일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함께 애써주신 이사진과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초대 이사장 이종찬 광복회장님과 저를 이어 이사장으로 헌신해주고 계신 박홍근 국회의원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독립운동가 후손 국회의장입니다. 의장 직무실에 홍범도 장군 부조상을 걸어두고 매일 눈을 맞추면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순국선열·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깁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제 정치 인생에서도 아주 값진 기회였습니다. 2018년 이종찬 이사장께서 “이것이 당신의 숙명”이라며 제게 기념사업회를 맡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에 저항하다 처형돼 유해조차 찾지 못한 외조부 김한 선생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땅으로 이주당한 고려인과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홍범도 장군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참 많은 일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큰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기념사업회는 ‘날은 홍범도’, ‘백두산 호랑이’로 불린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며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왔

습니다. 매년 봉오동·청산리전투 전승 기념행사를 열고, 장군을 알리기 위한 학술회의와 연구, 고려인 동포들과의 교류협력사업도 활발히 이어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의 백발백중 명사수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홍범도 장군배 전국사격대회’는 단기간에 급성장해, 대한사격연맹 공인대회이자 국가대표선발전으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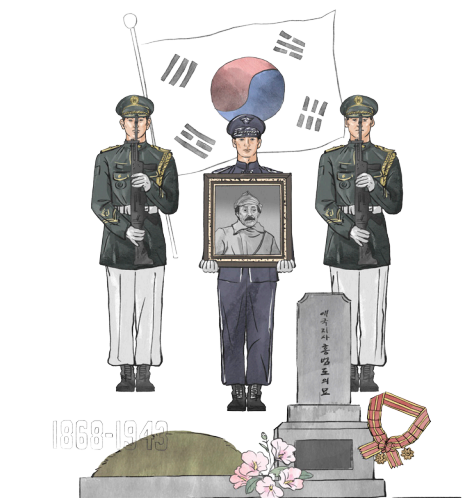
특히 4년 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우리 기념사업회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일이었습니다. 특사단으로 장군의 유해를 모시고 공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우리 영공으로 진입하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내가 죽고 우리가 해방되면 꼭 고국에 나를 데려가라”던 장군의 유언을 78년 만에 지켰고, 이제 우리 스스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가졌음을 장군께 보여드린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유해 봉환에 협조해준 고려인 사회와 카자흐스탄에 보답하기 위해 후속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했습니다. 크즐오르다대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간의 지능정보대학 설립, 고려극장 시설개선, 전북-크즐오르다 농업기술 교류사업 등이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큰 시련과 도전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홍범도 장군 홍상 이전 시도를 비롯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사도광산의 강제노동 역사 외면 등 우리의 헌법정신과 민족사를 부정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해 우리 기념사업회는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홍상철거 백지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국민과 함께 독립전쟁과 홍범도 장군을 알리며 홍상 이전을 저지했습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홍범도 장군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회원들께서 함께 이끌어준 여러 활동 덕분에 독립운동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장군의 업적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은 지난해 마무리되었지만, 저의 소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첫 해외 순방지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장군의 묘비를 기증받아 기념사업회에 전달한 일도 그 연장선입니다. 중국의 안중근 의사, 몽골의 이태준 선생 기념공간을 살피고, 각국 정부에 우리 독립운동 유적 보존과 유해 발굴에 협조를 당부하는 보훈 외교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기념사업회는 지난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주목받지 못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함께 조명하는 포용적인 기념사업,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역사운동으로 발전해가길 바랍니다. 역사 왜곡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시도는 지금까지처럼 단호히 대응해 나갑시다. 국회도 앞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사료 발굴, 해외 사적지 실태조사와 유해 봉환 등을 체계적 제도 마련과 적극적 의회 외교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는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기념사업회는 스무 해가 되는 동안 수많은 분들의 격려와 후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기념사업회를 아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홍범도 장군의 위대한 뜻을 헤아려 받든 초대 이사장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큼니다.

지난 20년간 기념사업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여천의 송고한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뜻깊은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육사 당국으로 하여금 장군의 홍상을 우리 국군의 요람인 육사의 교정에 세우게 하여 '대한제국군-의병-독립군-광복군-국군'으로 이어지는 국군의 정통성과 항일독립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였고, 카자흐스탄에 묻혀 계신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오는 데도 기념사업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장군의 유해를 국내에 봉안한 이후 발생한 장군을 매도하며 독립투쟁을 폄하하고 장군의 정체성마저 왜곡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뉴라이트)들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 광복

회와 기념사업회가 힘을 합쳐 이들의 음모를 분쇄한 것은 기념사업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이 밖에도 기념사업회는 1937년 10월, 스탈린에 의해 고려인 강제이주를 당한 이후 홍범도 장군이 머물러 계셨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과의 네트워크 사업을 비롯하여 국군의 정통성 회복을 위한 애드보커시 사업, 국가대표 선발의 산실이 된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대국민 홍보사업인 영화 '독립군'의 상영 및 배포 등 학술 및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여천 홍범도 장군의 이름이 역사의 뒷마당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천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변함없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20년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보여주신 장군의 용기와 리더십, 그리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불굴의 투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념사업회 20년 너머 100년의 역사는 지나온

과거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여천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자유와 정의, 독립의 가치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위대한 과업을 기념사업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홍근 이사장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독립운동가들의 위상과 명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라고, 여천의 애국정신이 오늘의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 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광복회 회장)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0년사



황 원 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고문)

1. 기념사업회 연혁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창립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20년 전인 2005년 2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3월 3일 사단법인으로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았다. 그 해는 치욕적인 을사늑약을 체결한 지 100주년이 되며, 해방된지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였다.

창립총회에서 이종찬 초대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는 장군의 빛나는 애국, 애족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민족운동의 분수령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장군께서 염원했던 조국의 완전 통일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기념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립총회에 앞서 설립발기인 대회는 2004년 12월 12일, 태평로 세실레스토랑에서 개최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과 문병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 조성우 민화협 의장이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을 만나 설립문제를 논의하여, 발기인 대회를 열게 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이종찬 원장을 이사장으로 추인하고, 이사로는 조성우, 문병호, 장의균(민예총 남북문화예술교류 위원장), 이수일(전교조 위원장), 김호일(중앙대 교수), 감사에는 오수영(정평법무법인 변호사), 상임이사에는 장의균 이사를 선출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정관 제4조(사업)에 따라,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 업적을 연구하여 국내외에 선양하고, 장군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하여 학술회의, 연극, 뮤지컬 등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카자흐스탄과 공동으로 장군의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재외 동포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축사는 조문기(부민관 폭파사건의 주역), 이기형 시인,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등이 친일파 청산 등 부끄러운 역사를 정리해야 된다고 호소했다.

홍범도 장군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지만, 그동안 기념사업회를 창립하지 못한 배경은, 당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공산주의자로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정책으로 남북 간에 첨예했던 대결구조가 완화되어 대화 분위가 조성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대화 정책을 계승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남북대화 분위기 반전에 따른 기념사업회 개편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남북대화 분위기가 반전되고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념사업회 창립 당시 대부분의 임원들이 남북 대화와 교류에 참여했던 분들이라 자연히 기념사업회가 활기를 잃고, 일부 임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 기념사업회는 침체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를 재충전하고 개편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홍범도 장군과 연고가 있는 남양홍씨종친회, 대중교 및 이종찬 이사장 관련 인사로 보완하고, 정관을 개정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고문과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8월 23일, 이사회에서 임재경, 우원상, 조성우 이사를 고문으로 하고, 기존 이사 중 장의균, 윤승길(한민족운동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류병균(평화연구소장) 이사는 유임하고, 신규로 홍성덕(서울문화사학회 부회장), 홍헌일(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장), 박민자(대중교 부녀회장), 손양호(불교중앙박물관회 회장), 황원섭(우당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감사에는 홍성배(전 종로세무서장)를 선임하였다.

제2대 이사장 우원식, 3대 이사장 박홍근 국회의원 취임

이종찬 이사장이 13년 동안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았으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사장을 사임하고, 2018년 8월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원(현 국회의장)을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게 되었다.

우 이사장은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분이지만, 그동안 역사적 평가가 인색했다고 지적하고, 그분의 업적과 생애를 재조명하여 애국정신을 계승하는데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종찬 명예이사장은 기념사업회 창립 당시만 하더라도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에서 소외된 상태로 대중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아 학교 교육과정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1990년 공산권이 몰락 후 러시아와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어 우리 학자들이 독립운동의 본산인 중국과 연해주를 왕래하면서 무장투쟁사를 연구하여 홍범도 장군의 위업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우원식 이사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2024년 8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대 이사장으로 박홍근 국회의



▲ 순국 70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원을 선임하였다. 박 이사장님은 홍범도 장군 홍상 이전 추진과 국군의 정통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군의 근간인 국군조직법에 독립운동 역사 계승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역사전쟁의 선봉에 서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 주요 사업

순국 70주기 추모식 행사,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개최

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6월 7일에는 봉오동 전투 전승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10월 25일에는 홍범도 장군 순국일을 맞아 추모행사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는 전투일인 10월 21일부터 26일임을 고려하여 추모 행사와 함께 진행해 왔다.

2013년 70주기 추모행사는 장군께서 순국하신지 70년만에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있는 장군의 묘역을 참배하고, 고려극장에서 추모식과 학술회의, 홍범도 장군 관련 연극 “의병들”을 복원하여 공연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10월 25일 오전에 개최된 추모식에서는 이종찬 이사장의 기념사와 백주현 주카자흐스탄대사, 리유보비 고려극장 극장장, 김게르만 고려인협회 부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국가보훈처의 후원으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기념사업회와 정부, 고려인협회가 공동으로 공식적인 추모 행사를 개최하여 의미가 깊었다.

25일 오후에는 반병률 교수의 진행으로 “고려인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서인한 전쟁과 평화연구소 연구원이 “홍범도 장군의 전략전술과 유격전”, 심한용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이 “홍범도 장군의 무장 투쟁과 러시아 관계”, 김게르만 카자흐스탄 대학 교수가 “극동지역 항일투쟁에 대한 러시아의 문헌연구 경향”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저녁에는 고려극장에서 태장춘 극본의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에 관한 연극 “의병들”을 공연했다. 이 연극은 1942년 고려극장에서 초연 후 47년 만에 재연하여 매우 감동적인 분위기였다. 카자흐스탄 추모 행사를 준비하면서 의병들을 공연하려고 고려극장 측과 협의했으나 극본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여 국내에서 수소문하여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고려극장에 보내 공연하게 된 것이다. 연극 공연 비용 2천만 원을 기념사업회에서 주선하여 재외동포재단에서 부담하여 성사된 것이다.



▲ 고려극장 “의병들” 공연



▲ 카자흐스탄 묘지 홍상 앞 단체 사진

다음날, 10월 26일에는 크즐오르다 중앙공동묘지에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단 23명과 고려인 대표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묘지참배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배 행사에서 홍범도 장군 관련 평전을 저술한 김유진 전 국회의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장세윤 박사 등이 저서를 봉헌하였다. 이날 묘지 행사는 10월 25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되고, 카자흐스탄 TV와 크즐오르다 TV에서도 이종찬 이사장의 인터뷰와 함께 방송되었다.

카자흐스탄 최초의 추모식을 계기로, 고려인 3, 4세에게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문제를 제기했고, 중앙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면서 홍범도 장군 연극을 공연하여 고려인들에게 민족의식을 양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국가보훈처와 홍범도장군 추모식을 5년 단위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개최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18년 75주기 추모 행사를 우원식 이사장이 취임한 해에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였다. 우 이사장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부인인 신경혜 여사가 참석하였다.



▲ 순국 75주기 추모식, 카자흐스탄

우원식 이사장 주선으로 2018년 11월에 고려극장 홍범도 연극팀을 국내로 초청, 육군사관학교와 의병의 도시 제천시에서 공연하여, 1942년 초연 후 국내에서 최초로 공연하여 연극사적 측면에서 의미와 가치가 크다는 보도가 있었다.

홍범도함 진수 및 취역식 개최

국방부에서는 종래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왜곡하여 함대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기념사업회와 학계의 노력으로 공식적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닌 투철한 민족주의자이며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밝혀짐에 따라 함대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그동안 연구 발표된 논문과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2016년 4월 5일, 울산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서 해군 214급 잠수함 진수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업회에서는 홍성덕 부이사장 등 12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홍범도함은 배수량이 1,800톤, 길이 65m, 폭 6.3m, 수중 시속 20노트(37km)로 대함전과 대잠수함전은 물론, 공격 기뢰 부설 임무를 수행하며 사거리 1,000km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 홍범도함 취역식 사진

2018년 1월 23일에는 진해 잠수함 기지에서 진해지역 해군 지휘관과 관계기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원 등이 참석하여 취역식을 개최했다. 홍범도함은 그후 5개월 동안 전력화 훈련과 작전 수행 능력평가를 받은 후 6월부터 작전에 배치되어, “보이지 않는 국가전략무기체계”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회의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오해와 왜곡 해소

홍범도 장군은 해방 이후 졸공 공산주의자로 매도되고 1921년 자유시 참변에서 가해자라는 오해를 받아왔으나, 그동안 각종 연구 활동과 학술발표회로 모두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친일분자와 독립전쟁의 공로를 과장하려는 인사들이 있다.

2012년 10월 25일,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장석흥 국민대 교수는 “3.1운동 이후 만주 독립군의 형성과 홍범도 독립군”을 통하여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단체를 통합하고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규명하였다. 같은 날,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홍범도 장군의 무장독립운동과 러시아 관계”를 통하여 러시아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실증과 해석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홍범도 일지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홍범도 장군의 역할을 밝혔다.

2014년 10월 24일,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청산리 전투에서의 홍범도 장군의 역할”을 통하여 이범석이 자서전 “우등불”을 통하여 청산리 전투의 주역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어랑촌에서의 진지 구축과 연합부대 사령관으로 추대한 과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연변대학교 박창욱 교수도 “청산리 전투의 주역에 관한 연구”에서 홍범도 장군이 주역이었으며, 일제가 홍범도 장군을 중시하여 37여단장 아즈마 소장의 주력부대와 기병 27연대 2개 중대를 홍범도 부대를 대상으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윤상원 전북대 교수는 “러시아 적군 활동과 자유시 참변”을 통하여 자유시 참변은 독립운동사상 최대의 비극이며, 홍범도 장군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자유시 참변 처리 과정에서 고려혁명군사법원 재판관 위원으로 참석, 많은 독립군을 석방하고 구출했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 10월 25일, 오세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러시아 내전기 극동지역 불세비키의 정책 갈등을 통해 본 자유시 참변 재검토”에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이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2023년 12월, 임성욱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특임교수

는 “홍범도 장군의 홍상 철거 주장의 왜곡과 오류”에서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고, 자유시 참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한지 78년 만에, 2021년 8월 15일 봉환하여, 8월 18일 전 국민적인 추모 열기 속에서 국립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당초 독립전쟁 100주년을 맞아 2020년 6월 봉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정으로 연기되어 광복 76주년을 맞아 봉환하였다.

장군의 유해봉환은 2005년 기념사업회 창립 이후 오랫동안 기념사업회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숙원사업이었다. 2011년 68주기 추모식을 마치고, 이사장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께 서면으로 “남북통합시대에 대비하여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국으로 봉환하고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야된다.”고 건의하였다.

2013년 순국70주기 추모식을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개최하고 귀국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유해봉환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에 대비하여 안보수석 비서관에게 유해봉환 자료를 전달하고, 2015년 5월에는 광복 70주년 기념 과제로 국무총리실에 유해봉환을 제안했었다.

2018년 우원식 이사장 취임 이후 유해봉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요청, 2019년 4월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우원식 이사장을 특별 수혜원으로 대동하여 정상회담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최고의 영웅을 전승 100주년을 맞아 고국으로 봉환하도록 간곡히 요청하여 성사된 것이다.

유해봉환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4일 우원식 이사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을 특사로 파견하여 최선의 대우를 갖춰 봉환하였다. 8월 15일 공군 특별수송기 편으로 서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 내외분이 직접 맞이하여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치하여 국민 참배를 마치고, 18일 대통령이 참석하여 안장식을 주관하였다.

유해봉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의 영웅을 잊지 않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국가보훈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3. 기념사업회의 주요 현안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국군의 정통성 회복해야

육군사관학교 독립전쟁의 영웅 홍상 이전 문제에서 발단된 국군의 정통성과 연원 문제는 헌법정신과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이념,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하여 국군을 창군한다는 국방부 장관 훈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이후 친일파들의 책동으로 국군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어, 법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취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문제는 육사 홍상 존치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현재 부승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문제는 박홍근 이사장이 작년 8월 취임 당시 강조했던 내용이므로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과 협의하여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될 것이다.

육사에서 국란 극복의 역사와 연계하여 기념조형물 재배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홍범도 장군을 배제하려는 저의가 있으므로 현 위치에 존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될 것이다.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 정착 지원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는 일발필살의 명사수인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대한사격연맹과 함께 추진하여 제1회 대회를 2021년 10월 창원에서 개최하였다. 2회 대회는 나주에서 광주시 후원으로 개최했고, 제3회 대회는 춘천시 후원으로 춘천에서 개최했다. 제4회 대회는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공인 대회로 격상되어, 2024년 6월 5일부터 7일간 국가보훈부, 나주시, 전남도의 후원으로 나주 국제사격장에서 열렸다.



▲ 제4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경기 모습

그러나 국가보훈부에서는 행사의 성격상 체육사업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국회를 통하여 예산편성 시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될 것이다.

유해봉환에 따른 카자흐스탄 후속 사업 지속적 점검

유해봉환에 따른 감사의 의미를 담아, 두 나라 간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기념사업회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홍범도 장군 기념 묘역공원 조성, 크즐오르다대학에 지능정보대학(일명 홍범도 대학) 신설, 고려극장 개선사업, 전라북도과 크즐오르다간 농업기술교류 사업 등이 있다.

묘역 기념공원 사업은 참배공간과 전시관, 야외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2023년 11월 3일 국가보훈부 차관이 참석하여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크즐오르다대학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위하여 2024년 4월 16일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동환 총장이 대학을 방문하여 한·카자흐스탄간 학술협력 심화, 양자 간 고등교육 분야 협력 확대, 학술교류, 공동 과학 및 응용연구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했다. 서울과기대가 크즐오르다 지역에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립하고, IT 전문가를 양성하며, 양국간 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후속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측의 예산지원이 선행해야 되므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다.

용산 미군 철수 부지 공원에 독립전쟁기념관 건립 추진

문재인 대통령 당시 2021년 12월,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 요청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독립전쟁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사장되었다.

용산공원은 조선시대 군영으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그 후 일본군과 미군이 주둔했던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독립전쟁기념관 건립부지로 적합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군의 정통성을 고려하여 이 자리에 독립전쟁 관련 자료를 전시하여 국군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에서 주도하여 관련 부처에서 재검토하도록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이다.

4. 전망과 과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창립 이후 지난 20년을 회고해 보면, 가장 어려웠던 위기는 창설 당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남북대화 분위기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전됨에 따라 기념사업회는 동력을 상실하고 임원들이 무관심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를 개편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

2023년에는 국방 당국과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 이전을 시도하고, 특히 홍 장군을 공산주의자이며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을 희생시킨 가해자라고 하며, 공산주의를 주적으로 하여 교육하고 있는 육사 교정에 존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을 비롯하여 독립운동 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홍범도 장군의 진실과 실체를 홍보함으로써 육사 내 현 위치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기념사업회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과 생애에 대한 연구와 국민적인 홍보를 통하여 친일파의 모략과 중상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공감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번 8월이면 다큐 영화 “독립전쟁”을 개봉하지만, 학술 연구, 문화콘텐츠 제작, 고려인단체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독립운동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념사업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군의 정통성과 연원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므로 독립운동단체들과 협조하여 조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흉상 철거문제를 계기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범도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이 영원히 역사 속에서 숨 쉬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바로 세우기” 기획 특집

국군 정통성 수립을 위한 3대 사업



한 동 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2018년 정부는 탄피 300kg을 녹여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만들어 육사에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군의 정체성 확립하고, 특히 독립영웅들의 항일 투쟁 정신과 국가 수호 의지를 계승하여, 장차 국군의 간성인 육사생도들의 역사교육을 준비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난 2021년 8월 15일, 육사내 흉상 주인공의 한분인 홍범도장군을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와 3일간의 국민추모기간을 거쳐 국민들에게 “이것이 조국이구나!”하는 감동을 안기며 8월18일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였다.

그런데 육사당국(사실은 국방부)은 육사내 흉상 설치로부터 5년, 홍범도장군 유해봉환으로부터는 2년여 지난 2023년 8월24일에 홍범도장군을 포함한 5인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철거하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실행 하루 전에 탄로나 우리 기념사업회의 즉각적 흉상철거 반대/백지화 운동과 광범위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기념사업회는 흉상철거 등 제반 행위(뉴라이트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를 대한제

국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단절시켜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선열들의 목숨건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뉴라이트들의 친일 사관에 근거한 역사전쟁의 선전포고로 인지하고 역사전쟁에서의 올바른 승리를 위해 국군정통성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여 아래 3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바, 그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이종찬 광복회장님 전국 순회 강연

흉상 철거 백지화 투쟁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이종찬 회장이 본인만이 지닌 설득력과 권위로 가장 앞서 싸워오신 점에 착안하여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강연을 기획하였다. 강연 제목은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정체성 강연”이며 주제는 “청년과 독립”이다.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을 기본으로 실행을 해가며 유연하게 강연 도시와 횡수를 조정해갈 예정이고, 첫 강연으로는 3월 8일에 우리기념사업회 대전모임 주관으로 대전에서 450여 명이 수강하여 이 행사의 향후 영향력을 실감케 하였다. 2회 강연은 5월 9일에 춘천에서 열렸으며, 3회 강연은 5월 21일 대구, 4회 강연은 6월 23일에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을 기념하여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탄핵과 조기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일정을 조정해 가며, 5회 이후의 강연은 대선 후 서울소재 주요대학 학생회와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명사인 이시영 선생 일가의 헌신성과 권위, 그리고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이종찬 회장의 풍부한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식견,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서의 역사에 대한 신념으로 이루어진 이종찬 회장님의 설득력은 강연을 듣는 이들에게 단순한 감동이 아닌 역사의 책무를 부여할 것이다. 이 강연을 통해 대중들은 우리 국군의 정통성에 대한 입장이 생길 것이고 이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전쟁에서 성과를 보증할 것이다.

2.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제작 및 전국 상영

역사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세계의 축 중 하나가 영화 “독립군”이다. 영화의 성공은 국군의 정통성을 우리 사회에 정면으로 제기하고 이를 통해 국군조직법을 성공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중요 기반이다.

영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 관객 10만이면 그 영화가 제기하는 이슈가 당시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10만 관객을 목표로하여 국군의 정통성과 국군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하여야 한다.

10만 관객을 위해 지난 3월에 1차 소설편당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편당에 참여한 분들에게 영화제작 소식지를 지금까지 5회 발송하여 제작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1차 소설편당을 기반으로 CIS거주 고려동포와 한국 거주 동포의 후원을 조직하여 고려동포와 함께 만드는 영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한고려인협회 및 재 카자흐스탄 고려인단체, 알마티 주재 한인단체, 알마티 주재 한인기업, 카자흐스탄 고려인 기업 등 10여 단체가 후원에 참여하였다. 고려동포의 제작 참여와 관람을 위해서 러시아어 자막본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러시아어 자막 후원은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회장이 나서고 있다.

촬영 상황은 현재 국내 촬영은 마친 상태이고, 6월 초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독립운동가 후손 고려인 동포와 단체를

촬영할 예정이다. 이 일정 이후에는 편집과 마케팅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마케팅 단계에서는 이 영화의 주연급인 조진웅 홍보대사와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개봉을 앞두고 영화를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8월7일에 전국 200(카자흐스탄 알마티,크즐오르다 개봉관 포함)여 극장에서 동시 개봉할 예정이다.

개봉 일주일 전에는 영화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을 모시고 시사회를 개최할 것이다.

국군 정통성이란 주제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어떤 한 진영의 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영화 출연진을 다양화하고 진보·보수를 망라하여 선발하였다. 그 예로 3인의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다.

3. 국군조직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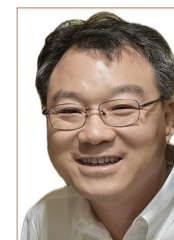
이종찬 회장님 전국 순회강연과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의 궁극의 목표는 국군의 정통성을 사회적으로 합의해 더 이상은 국군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국군은 의병-독립군-광복군을 거쳐 해방 이후 국군으로 이어졌고 국군은 국민의 군대임을 국군조직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군정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그 합의를 바탕으로 국군이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를 갖게될 것이다.

국군조직법 개정의 자세한 경과와 내용은 본 호 김광중 이사의 “국군 조직법 개정 발의 배경 및 진행 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바로 세우기” 기획 특집

국군조직법 개정 발의 배경 및 진행 상황



김 광 중 (홍법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지난 123 군사내란 사태로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이 없더라도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본래 의도가 친위 쿠데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스스로 헌정질서를 무너트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한 것입니다. 다행히 늦은 밤 여의도로 달려가 계엄군을 가로 막은 시민들이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적 열기 속에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국민의 환호 속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8월 육군사관학교 총무관 앞에 세워져 있던 독립군 및 광복군 영웅 흉상 철거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삼일절 99주년을 기념하여 설치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철거하려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신원식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중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의 주역이

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회가 앞장서고, 압도적인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무관해 보이는 두 사건은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질서를 무너트리려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그 구성원들의 근본과 질서를 형성하는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추구하는 가치를 정하고,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흉상 철거 시도는 대한민국과 그 군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에 반하여, 대통령 개인의 사사로운 권력욕에 국군을 이용한 것입니다.

헌법은 일정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창설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가를 조직하는 조직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집니다. 국가라는 공동체 구성원들

이 합치된 의사로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것이 헌법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극명히 대립하는 구성원들이 모인 국가라는 공동체는 헌법이 정하는 질서에서 벗어나면 단 한시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74조 제2항에서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군대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국민의 군대가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역할,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 등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홍상 이전을 추진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그 주된 빌미로 삼은 흥범도 장군은 박정희 정부가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그 유해 봉환을 시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해군의 신에 함정을 ‘흥범도함’이라 명명하여 그 정신을 우리 군이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침내 유해를 봉환하였습니다.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과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을 그 연혁으로 들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육군사관학교는 2017.12. 11.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뿌리가 홍상 주인공인 이회영 선생의 신흥무관학교라고 밝혔습니다.이법석 장군은 이승만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은 제헌의회부터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1949. 6. 23. 지금의 병역법을 제정했습니다(의안번호 010136). 이미 육군사관학교는 흥범도, 김좌진, 지청천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7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은 그 정통성의 근거에 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1조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뿐입니다. 만약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이 독

립군과 한국광복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 홍상이전 논란 같은 일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곧 위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 조직과 편성 등 국군의 근간을 정하는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있으며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사업회는 국군조직법 개정 운동을 광복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회 이사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전 의원 등 14인의 국회의원도 그 뜻에 공감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14일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문언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지난 해 11월 7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위 개정안에 대해 반대론을 펼친 이들의 주된 논거는 국군의 연혁에 관한 연구 부족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국군의 역사를 더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의 성격에 대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정한 법규범입니다. 즉, 헌법에 담긴 문언은 대한민국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합의로 정한 것입니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립 과정의 연혁적 사실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국민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찾는 합의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건립 과정의 구구한 사실에 대한 논란은 발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군조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군대의 조직에 관해 정하는 합의입니다. 조선의 패망 이후 존재한 여러 군사 조직 중 지금의 국군이 그 정통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지는 대한국민의 합의에 의해 정할 문제입니다. 우리 국군 정통성의 근거를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군이나 미군에 의한 남조선국방경비대로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이 정한 헌법

의 전문이 이미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군으로 하여금 그 존재 근간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했습니다. 군의 최고 지휘관들은 ‘국민의 군대’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사사로운 수족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도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군조직법 개정은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단죄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시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다시는 우리 국군이 내란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군대로서의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과거 홍상 이전 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이에 국군조직법 개정은 이번 내란 사태의 수습과 함께 시급히 진행해야 합니다.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7)



반 병 룰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자유시 집결 한인군대들

일본군의 '중시베리아 철수' 결정으로 1920년 10월 자바이칼주의 치타에 군림하며 소비에트러시아와 러시아원동의 교통연락을 가로막고 있던 백위파 세묘노프정권이 붕괴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에트러시아와 시베리아출병 일본간섭군간의 완충국가로서 1920년 4월 성립된 원동공화국이 치타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원동공화국과 일본군간에 연해주 중부의 이만강(江)을 경계로 이북과 이남으로 영역이 나누어졌고, 중간의 이만과 스파스크 사이 지역에 중립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아무르주에서 활동하던 사할린군대(니항군대), 이만군대, 다반군대 등이 1920년 10월경 자유시에 집결하고 있었고, 간도독립군부대들은 이보다 늦게 세 그룹이 순차적으로 자유시에 도착했다. 최진동의 독군부 군대와 허근의 의군부의 통합군대인 총군부 부대는 1921년 1월 말에, 안무(安武)의 대한국민군은 2월 초순에, 그리고 홍범도 이청천(李靑天) 등이 이끌고 온 '대한독립군' 군대 역시 3월 중순까지 자유시에 도착했다.

한편, 자유시에는 이미 1920년 4월, 흑룡주한인총회가 조직하여 1920년 7월 1일 연해주로부터 이전해온 대한국민의회 군무부로 넘겨준 한인보병자유대대가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소속으로 주둔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21년 3월 중순 홍범도 군대가 도착할 당시 자유시에는 약2천여명의 한인무장병력이 집결해 있었다.

노령지역 한인군대	지휘자	창설지역	비고
이만군대	김표트로, 박공서, 김덕보	이만	
다반군대	최니콜라이	다반(청룡)	
독립단군대	박그레고리, 최파벨, 전용호	이만	
사할린군대	박일리아, 임호, 고명수	니항	
학생대**	채영	자유시	하사양성소 학생
자유대대	오하묵, 최고려, 황하일, 최호림, 전희세, 유수연, 유선장,	자유시	
중령 한인군대			
총군부 군대	최진동, 허재욱, 이택, 오병묵	북간도	독군부, 의군부의 통합
국민군 군대 (국민회)	안무, 정일무, 김광, 김규찬	북간도	
'대한독립군' 군대	홍범도, 이병채	북간도	북로정일제일군, 대한독립군
	이청천, 김승빈	서간도	서로군정서
	서일, 박두희	북간도	북로군정서

▲ 홍범도군대 도착 당시 자유시 집결 한인군대 현황(1921년 3월 중순)

자유시참변 당시 의군부 군대에 소속되어 있던 김재규는 1958년에 작성한 자신의 회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때 자유시라는 곳에는 소위 자유대대라는 조선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는 당시 아령(俄嶺) 국민회의의 지배를 받던 군대이고, 한번도 흰파나 일본은 반대하여 전쟁한 일은 없는데, 이미 그곳에 있던 여러 조선군대들과는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만나면 '베룩[버룩]이를 툰다' 하면서 척하면 치고 욕하고 하면서 서로 적군을 대치하듯 하고 지내었다.

특히 본래부터 자유시에 근거를 둔 자유대대와 니콜라예스크-나-아무레(尼港)에서 니항사건을 치르고 온 사할린군대간에는 배타적이었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자유대대는 이르쿠츠크의 전로고려공산당(이르쿠츠크파)과 제휴하고 있었던 대한국민회의의 정치적 지휘를 받고 있었고, 1921년 1월에 창설된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부장 슈미야츠키)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사할린군대는 치타 소재 러시아공산당 원동부 한인부와 연계를 갖고 있던 아무르주 러시아공산당 한인부(상해파)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원동공화국의 크라스노쇼코프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연해주지역에서 백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경험을 갖고 있던 다른 한인빨찌산군대들은 사할린군대를 중심으로 결집해 있었고, 홍범도군대를 비롯한 간도에서 온 독립군 군대들은 양측의 대립에서 중립적 입장에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양측의 대립은 1919년 9월이후 이른바 통합임시정부 출범 당시 참여와 불참으로 분열되었던 대한국민의회 주류와 비주류인 한인사회당의 분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홍범도 일지』에서 홍범도는 "정월 26일 2군단에게 무장을 바치고 2월 6일 자유시"로 들어갔다고 회상한바, 음력 2월 6일은 양력으로 1921년 3월 15일이다. 홍범도군대가 자유시에 도착한 1921년 3월 중순경 원동공화국을 배경으로 통합한인군대 편성과 지휘권을 확보하고 있던 사할린특립의용대(사할린군대, 이만군대, 다반군대)측이 자유대대측에 무장해제를 강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홍범도 군대에 앞서 자유시에 도착해 있었던 총군부 군대(최진동·허근 지휘)와 국민군 군대(안무 지휘)는 3월 초 사할린특립의용대의 '3

일간 식량 단절' 등 압박을 받아 사할린의용대 주둔지인 마사노프로 이동해 있었고, 자유대대는 자유시를 떠나 크라스노야로보로 이동한 후 무장 해제되어 있었다. 홍범도 군대 역시 마사노프에 주둔하게 되었다.

사할린군대 주도의 통합군대 '사할린특립의용대'와 지휘부 '전한군사위원회'(1921.3.15)

1921년 1월 20일, 원동공화국 군무총장이자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에이헤는 자유시에 집결한[또는 집결할] 서북간도와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병력을 '사할린특립의용대' 명칭으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다. 사령관에 박창은(이반 다닐로비치), 참모장에 러시아인 그리고리예프가 임명되었다. 사할린특립의용대는 인민혁명군 총사령관에 직접 예속되었다. 원동공화국 수도 치타에 본부를 둔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에이헤는 1921년 3월 9일, 통합한인군대의 지휘관 할권을 하바롭스크에 본부를 둔 제2군 사령관에게 넘겼다.

원동공화국 수도 치타에 소재한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 원동부 산하 한인부의 지원을 받고 있던 사할린군대의 주도로 1921년 3월 15일부터 21일에 걸쳐 크라스노야로보에서 전한의병대의회(全韓義兵代議會)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연해주와 서북간도에서 이동해온 한인군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한군사위원회'와 '사할린특립의용대'가 조직되었다.

통합군대의 지휘부인 '전한군사위원회'에는 러시아지역에서 활동한 한인빨찌산군대들의 지휘자들뿐만 아니라, 홍범도, 이청천 등 간도독립군 지도자들도 망라되었다. 그러나 자유시에 늦게 도착한 홍범도 등 독립군 군대 장교들은 전한의병대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전한군사위원회 조직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 사할린특립의용대의 명칭은 1921년 3월 원동공화국총사령관의 명령(36호와 37호)에 따른 것이며, 한인군대들은 모두 그에 직속되었다. 사할린특립의용대는 원동공화국측의 요구에 따른 대외적 명칭이었고, 한인들간의 대내적인 공식명칭은 '대한의용군'이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에 앞서 자유시에 도착한 총군부, 국민군 군대 등 간도 독립군 대표들은 사할린군대 주도의 한인군대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대대측의 설득에 따라 이만군대 대표들과 함께 원동공화국의 수도 치타를 거쳐 이르쿠츠크에 가 있었다. 총군부와 국민군 대표들은 이르쿠

초크에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간부들과 후술할 고려 혁명군정의회 조직 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군대	지휘자	인원수
사할린군대	박일리아	420명
다반군대	최니콜라이	165명
이만군대	김표도르	110명
독립단군대	박그리고리, 최파벨, 전응호	100명
총군부군대 (도독부, 의군부)	최진동, 허근	445명 (60여명)
국민군 군대 (국민회 군대)	안무, 김규찬, 김광	80명
대한독립군 (북로정일군, 서로군정서 교성대)	홍범도, 이병채, 이청천, 김승빈	450명
하사양성소(학생대)	채영	수십명
		총 1,770명 *

▲ 사할린특립의용대에 참여한 군대 및 병력(1921년 3월 당시)

*1921년 6월 상순 무렵 사할린특립의용대로부터 고려혁명군으로 이탈한 병력(빨간색 밑줄로 표시) 대략 7백 수십명((대한독립군 450명, 이만군대 110명, 국민군 군대 80명, 총군부 군대 일부(60여 명), 채영의 학생대(하관양성소) 수십명 등)이다. 그리하여 자유시침변 직전 수라첵카 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사할린특립의용대측 병력은 1천여명이었다. 수라첵카에서 빠져나온 사할린군대의 장교 임호는 당시 사수라첵카 마을 주둔 사할린특립의용대 병력은 1.008명이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만에서 홍범도, 이청천, 박두희 등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자유시까지 갔던 3단연합의 통합군대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은 ‘득병(得病)’으로 음력 4월 북만주 밀산으로 되돌아갔다.

자유대대 주도의 새로운 통합군대와 지휘부: 고려혁명군과 고려혁명군정의회

자유대대측은 1921년 1월에 창설된 국제공산당(코민테른) 원동비서부(‘동양비서부’) 부장인 슈미야츠키의 지도와 후원을 받고 있었다.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는 슈미야츠키에게 원동지역에서의 모든 당, 혁명운동과 군대에 관한 전권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슈미야츠키가 ‘전한공산당’ 창립과 한인군대의 통합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게 되었다.

1921년 3월 중순, 사할린특립의용대의 지휘부인 전한 군사위원회가 조직되자 이에 맞서 소비에트러시아 영내인 이르쿠츠크에 본부를 둔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의 지도와 주도하에서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가 조직되었다. 새로운 통합군대로서 고려혁명군을 조직하고 그 지휘부를 서둘러

조직한 것이다.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에는 총사령관(의장)에 그루지아 출신의 칼란다리쉬비리, 의원 김하석과 채성룡의 3두체제였고 사령부관에 자유대대장 오하묵, 임시참모장 유수연이 선임되었다.

자유시로 가 한인군대 통합을 실행하게 될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군내 기병(코카서스 기마병) 6백여 명을 부속시키고, 이르쿠츠크에 주둔한 적군(赤軍) 제5군에 편입되어 있던 합동민족군대 6백여 명을 배치하였다. 이에 더하여 군대의 주이상 정신교육을 위하여 이르쿠츠크 공산당 정치학교 제1회졸업생 16명을 대동케 하였다.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 조직 당시 자유시에서 이르쿠츠크로 온 군대 대표들과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간의 협의회에서 일부 군대 대표들은 ‘전고려혁명군대군정의회’(고려혁명군정의회)를 조직하자는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의 제안에 대하여, “출석한 대표 몇 개인은 고려의병대 일부의 대표인 고로” “권리도 없고 또 장래 책임 문제가 될 것”이라며 거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는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처럼 간도 독립군 지도자들, 특히 3월 중순에야 자유시에 도착한 홍범도, 이청천, 김승빈 등이 자유시도 아닌 소비에트러시아 영토인 이르쿠츠크에서 한인군대 (‘고려혁명군’)의 최고지휘부로 조직된 고려혁명군정의회 조직과정에도 참여할 여지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통합한인군대 관할권의 이전: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에 소비에트러시아 제5군으로

소비에트러시아 적군 제5군 혁명군사의회(부총사령관 쇼린, 참모장 아파나시예프 명의)는 1921년 3월 30일 자로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총사령관 에이헤)에게 관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1921년 4월 23일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에이헤는 제2군 사령관 파블로프에게 전보를 발송하여 통합군대 ‘사할린특립의용대’의 관할이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장인 슈미야츠키에게 이양되었고 사령관으로 칼란다리쉬빌리가 임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총사령부에서는 슈미야츠키의 동양비서부의 연락을 받아 4월 30일경 한인부 간부들인 박애, 계봉우, 장도정, 김진 등을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하여 ‘반혁명’ 혐의로 체포하였다. 동시에 한인부 역시 해산되었다.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 총사령관 대리 오하묵과 의원 김하석, 참모부장 유수연 등은 정치학교 졸업생 16명과 간도군대 대표들을 대동하고 4월 14일 이르쿠츠크를 떠나 3일 후 치타에 도착하여 원동공화국 군무총장 에이헤를 만나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 조직 사실을 알렸다. 이들 일행은 5월 2일 자유시에 도착하였다. 뒤이어 이르쿠츠크로부터 5월 21일 200명이 도착하는 등 3회에 걸쳐 5월 28일까지 6백여 명의 합동민족군대 병력이 자유시에 도착하였다.

오하묵 등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 지도부가 자유시에 도착한 후, 사할린특립의용대 간부들은 이를 번복시키기 위한 외교적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대세를 역전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동안 원동공화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정치적 배경이던 치타의 한인부가 해산되고 그 위원들이 체포된 상태였다. 사할린특립의용대 사령관 그리고리예프와 군정위원 박일리아를 비롯한 장교들은 연명으로 인민혁명군 제2군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5월 8일자)를 제출한데 이어, 리예프와 박일리아가 사할린특립의용대와 그 지휘부인 전한군사위원회를 인정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지만(5월 11일자), 새로운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라핀은 그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뿐만아니라 라핀은 1921년 3월 15일~21일 크라스노야로보에서 열린 전한의병대회에서 조직된 ”자칭 군사위원회를 해산할 것”과 ”오하묵에게 복종하고 그의 지시와 명령 모두를 무조건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홍범도 군대의 사할린특립의용대 이탈과 고려혁명군 편입 (마사노프에서 자유시로)

5월 6일, “사할린 군대의 협박으로” 군대를 마사노프에 둔 채로 자유시에 체류하고 있던 홍범도, 최진동, 이청천은 이들 군정의회측 간부들과 협의회를 가졌다. 간도 독립군 지도자들은 “고려군정의회에서 군법상 논하면 즉시 사할린의용대에 명령하여 본군정의회에 복종하라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 의용대들은 아직 군율이 무엇인 것을 잘 이해치 못하며 또는 저간 허다 풍파가 있었으니 군율대로 명령함보다 위원을 파송하여 고려군정의회 조직된 내력과 장래 진행책을 먼저 설론하며 겸하여 포유문으로써 일반군인에게 각오를 주는 것이 방침상 일책”이라고 결의하였다.

5월 11일, 홍범도와 최진동은 자기의 군대에 고려군정의회 결정 내용을 군인들에게 설유하기 위하여 마사노프

로 갔다. 그러나 사할린특립의용대에서는 두 사람을 군정의회측 김하석과 오하묵에게 매수되었다 하고 최진동을 수감하였다. 며칠 만에 최진동의 군인들이 최진동의 구금 사실을 알고 반란과 폭동을 야기하므로 최진동을 석방하였다.

원동공화국 군부 및 인민혁명군이 이미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와 소비에트러시아 제5군 혁명군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고려혁명군정의회 권한을 인정한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범도를 비롯한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은 당초 사할린특립의용대와 전한군사위원회에 부여되었던 통합군대 관할권이 고려혁명군정의회측으로 이양된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6월 6일 정식의 고려혁명군정의회 총사령관 칼란다리쉬빌리와 의원 유동열, 최고려가 코카서스 기마병 6백명을 이끌고 자유시에 도착하였다. 고려혁명군정의회는 이에 앞서 5월 4일부터 17일에 걸쳐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고려공산당 대회(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서 선출된 고려공산당 중앙간부의 추천과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의 승인으로 조직되었다.

정식의 고려혁명군정의회 간부들의 자유시 도착을 전후로 하여 마사노프에 주둔하고 있던 간도독립군 군대의 홍범도, 이청천, 안무, 최진동, 채영 등 여러 지휘관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군대를 이끌고 자유시로 빠져나왔다.

홍범도가 마사노프에 주둔하고 있던 대한독립군 군대 440여 명을 이끌고 자유시로 나온 것은 정식의 고려혁명군정의회가 자유시에 도착하기 4일 전인 6월 2일 밤이었다. 홍범도 군대에 이어 6월 7일 밤 안무의 국민군은 주둔지인 마사노프를 떠나 6월 8일 자유시에 도착하였다. 총군부 군대 군인들은 앞서 마사노프를 떠난 최진동의 뒤를 따라 개인별로 자유시로 이탈해 왔는데 6월 10일경에 이르러 70여 명에 달하였다.

자유시침변 당시 양측에 소속된 군대를 보면, 마사노프에는 사할린군대, 다반군대, 독립단군대 그리고 총군부군대(독군부, 의군부)가 주둔하고 있었고, 자유시의 고려혁명군정의회측에는 자유시에서 대한국민의회의 군대로 조직된 자유대대 335명을 비롯하여, 이르쿠츠크로부터 온 합동민족군대 그리고 6월 초순 마사노프로부터 이탈해온 김표트르의 이만군대, 홍범도·이청천의 독립군, 안무의 국민군 군대, 채영의 하사양성소 소속 학생대가 있었다.

군대	지휘자	인원수
한인보병자유대대	오하묵	335명
이만군대	김표도르	110명
합동민족연대	최메포지	373명(한인)
자바이칼 기병대	칼란다리쉬빌리	564명
간도 군대 일부	홍범도, 이청천, 안무, 최진동	590명
하사양성소(학생대)	채영	수십명
		총 1,992명

▲ 고려혁명군에 소속된 군대 및 병력 (1921년 6월초 자유시참변 전)

* 밑줄 빨간색 표시: 1921년 6월 상순 사할린특립의용대로부터 고려혁명군으로 이탈·합류한 병력.

홍범도 등 간도독립군의 마사노프 이탈과 자유시행의 배경

홍범도가 사할린특립의용대(전한군사위원회)측에서 고려혁명군(고려혁명군정의회)측으로 가담한 이유는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홍범도는 앞서 언급한 바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통합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러시아측의 최종결정에 따른 것이다. 즉, 처음에는 원동공화국 군부(인민혁명군)이 박일리아의 사할린군대(니항군대) 중심의 사할린특립의용대와 그 지휘부인 전한군사위원회에게 통합군대의 주도권을 부여했으나, 이후 한인혁명에 관한 지도권을 장악한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의 후원을 받은 오하묵의 자유대대 중심의 고려혁명군(고려혁명군정의회)측으로 관할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둘째, 간도의 독립군 지도자들이 마사노프를 떠난 또 다른 이유는 식량 문제 등으로 한인군대와 러시아농민들간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인군대의 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의 오랜 기간동안 러시아농촌에 주둔하게 됨으로써 러시아농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1921년 5월 중순 무렵에 이르러 한인빨찌산부대들과 러시아농민들간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달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인민혁명군 간부들과 러시아공산당 당원들 사이에서 한인군대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었다. 한인군대를 관할하고 있던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제2군 사령관은 “문제가 악화되면 농민과 한인부대간의 전면적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인농민들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활동해온 간도 독립군들의 경험에서 보면, 본의 아니게 러시아농민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는 현실에서 홍범도 등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의 마사노프 탈출과 자유시행은 매우 늦었지만 자연스러운 결행이었다. 특히 의병과 독립군 시절 가난한 농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어온 평민 출신의 홍범도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정식의 고려혁명군정의회와 고려혁명군 주병력의 자유시 도착은 이러한 진퇴양난의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던 홍범도 등 간도 독립군에게 돌파구를 제공한 셈이었다.

셋째, 통합군대로서의 고려혁명군의 향후 군사노선에 대한 고려혁명군정의회와 급진적 강경노선이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원동비서부장 슈미야츠키와 고려혁명군 총사령관 칼란다리쉬빌리를 비롯한 고려혁명군정의회 간부들은 “3개월 내에 고려의병대를 통일하여 원동정부지대를 벗어나서 고려국경 즉 두만강과 압록강 상류로 중국 길림성 안도, 무송 삼림간에 둔진(屯陳)하고 고려지대[국내]를 향하여 의병식으로 출몰하면서 전투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홍범도 등은 3.1운동 이후 자나 깨나 한시라도 빠르게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여 일본군과 전투하기를 열망하고 있던 상태에서 칼란다리쉬빌리 등 고려혁명군정의회측의 향후 군사노선에 커다란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치러본 홍범도, 이청천, 최진동, 안무 등 독립군들은 슈미야츠키등의 강경론에 현혹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용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홍범도 등 간도의 독립군지도자들이 이들 국제공산당 원동비서부와 고려혁명군정의회의 진의를 파악하게 된 것은 이르쿠츠크로 이동한 이후 몇 개월이 지난 후였다.

무장진압 결정과 자유시 참변

6월 9일 밤, 칼란다리쉬빌리는 사할린특립의용대의 지휘관들과 전한군사위원회에 6월 10일 아침 10시까지 주둔지 마사노프를 떠나 자유시로 이동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하였다. 이후 사할린군대내에는 오하묵의 명령으로 구금되어 있던 사할린특립의용대 총사령관 “그리고리예프가 살해당했으며, 스보보드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관총 사격이며, 그들을 소비에트 러시아로 끌고가서 굶주려 죽게 만들 것이라는 등등” “선동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사할린특립의용대는 고려혁명군정의회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둔지인 마사노프를 떠나 자유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즉, 사할린 부대는 이미 나흘 째 여행을 하여 크라스노야로보 역으로부터 하바롭스크 방향으로 75베르스타(80킬로미터) 거리에 있었다. 사할린부대가 입장을 바꿔 자유시로 돌아와 근교의 수랍첵카 마을에 주둔한 것은 6월 15일 오후였다. 당시 사할린특립의용대의 병력은 1천여명이었다.

이후 양측 군대의 통합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사할린특립의용대측이 요구한바 고려혁명군정의회 내의 국민의회 출신 한인의원들(김하석, 최고려, 오하묵)의 배제와 통합군대의 편제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최종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6월 27일 마침내 고려혁명군정의회는 사할린특립의용대에 대한 무장진압과 책임자들의 범죄적인 행위'에 대한 문책을 결정하였다. 무장진압 결정에 이어 곧바로 칼란다리쉬빌리, 오홀라 그리고 인민혁명군 제2군측 기병연대 지휘관 오세타니가 진압 병력 동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기병연대와 한인부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진압 작전의 주병력을 동원하고 지휘하게 될 제29연대의 연대장, 수행원, 부관 등 지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들 지휘관들은 “자기들에게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기병연대나 한인군대의 동원이 필요없다고 거절하였다. 칼란다리쉬빌리가 제29연대측에 전적인 동의를 표함으로써 한인군대 동원안은 기각되었다. 동원된 전체 병력의 지휘는 제29연대장 말라호프가 맡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인민혁명군 제2군 지휘부가 한인군대의 동원에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칼란다리쉬빌리와 오홀라는 자신들의 통솔하에 있는 한인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칼란다리쉬빌리는 부사령관인 오하묵에게 수비대(자유대대) 병력의 동원을 명령하고 자신이 이르쿠츠크로부터 데려온 (코카서스) 기마병대의 동원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오홀라가 작성한 자유시참변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보면, 오홀라라 무력진압 작전에 동원된 한인군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한 부분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한인군대는 물론 고려혁명군정의회에 소속된 오하묵의 자유대대나 합동민족연대 소속의 한인병력이었다.

오홀라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한인병력은 사할린특립의용대의 주둔지이며 자유시참변의 현장인 수라첵카 마을로부터 4~5베르스타(4.1~5.3킬로) 떨어진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오홀라의 보고서에 묘사된 구체적인 진압과정에 관한 설

명 부분에서 한인군대의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말하자면 무력진압 작전에 동원된 한인부대는 현장인 수라첵카 마을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일종의 유사시 지원 병력으로 배치되었지만, 전투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였던 제29연대장 말라호프와 칼란다리쉬빌에 자유시참변 직후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홀라가 작성한 자유시참변에 대한 보고서에는 무력진압 작전에 동원된 한인군대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오홀라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사할린특립의용대의 주둔지이며 자유시참변의 현장인 수라첵카 마을로부터 4~5베르스타(4.1~5.3킬로) 떨어진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 한인군대는 칼란다리쉬빌리가 동원한 오하묵의 자유대대 또는 합동민족연대 소속 한인병사들이다. 오홀라의 보고서에 묘사된 진압과정에서 한인군대의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말하자면 무력진압 작전에 동원된 한인부대는 현장인 수라첵카 마을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일종의 유사시 지원 병력으로 배치되었지만, 전투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였던 제29연대장 말라호프와 칼란다리쉬빌에 자유시참변 직후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혁명군 전권대표 오홀라는 자유시참변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들을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에 일지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하게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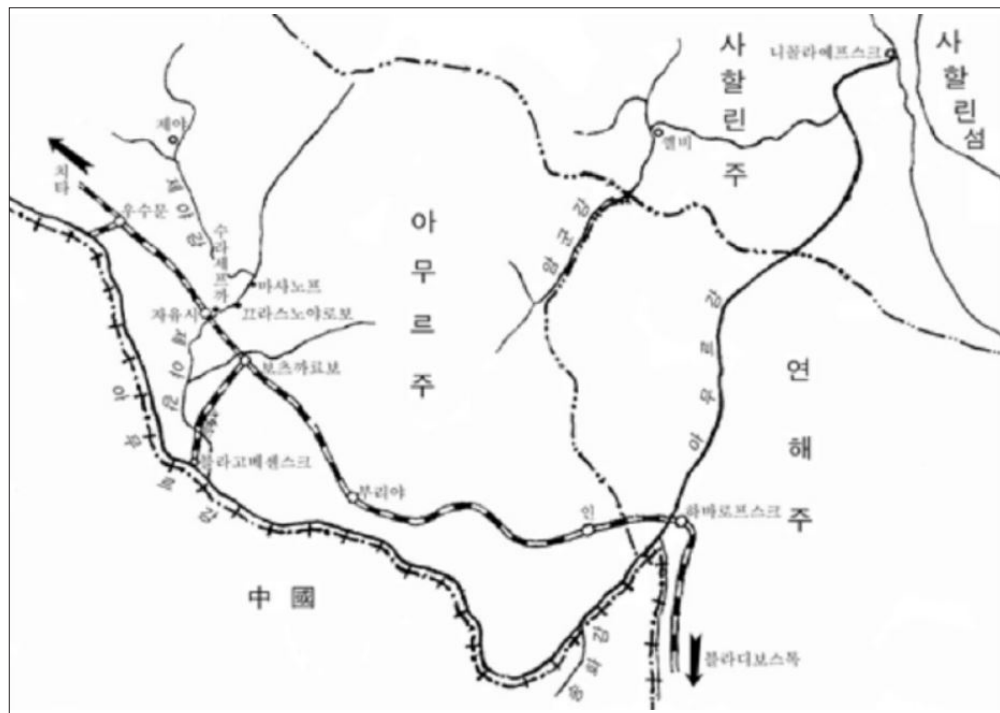
오홀라의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보고서들을 종합하면, 자유시참변 당시 사할린특립의용대 군인들의 무력진압에 직접 참여한 병력은 인민혁명군 제2군 제29연대 소속 보병 1천명, 제29연대 소속의 2개 장갑차와 장갑부대원 270명, 기병중대 소속 380명, 그리고 고려혁명군정의회 의장겸총사령관 칼란다리시빌리가 이르쿠츠크에서부터 데려온 기병 300명이었다.

오홀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진압작전은 1921년 6월 28일 오후 3시경에 시작되어 4시간 반만인 오후 7시 30분에 끝났는데, 가해자측은 1명 사망, 9명 부상이었고, 피해자인 사할린부대는 36명 사망, 행방불명 60명이며, 최종 무장해제된 사람들은 860명이었다. 오홀라는 고려군정의회측에 특별조사위원회(임시조사부)를 조직케 했는데, 이 위원회의 임무는 ‘폭동과 선동행위의 주모자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자유시참변 이틀후인 6월 30일에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1주일간 포로군인들을 심문했다. 포로들 가운데 결국 총군부(최진동의 독

군부와 허군의 의군부 군대) 군인 364명은 무죄로 하여 군정 의회에 편입시켰다. 나머지 500명은 재차 검사부에 인도하여 다시 취조하였다.

그러던 중 7월 5일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로부터 전보가 왔는데, “고려혁명군대를 만주로 출동할 계획을 정지하고 속히 군대를 영솔하고 일크쓰크로 입래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과 원동정부간에 대련회의(大連會議)가 개최되면서 국제법상 문제에 관련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리하여 7월 30일 중대 범죄 장교와 군인 72명은 이르쿠츠크로 압송했고, 그 나머지

428명 역시 이르쿠츠크로 압송하려고 했으나, 원동공화국 정부 제2군단에서 이들의 운송을 거부하고 노동병으로 인도할 것으로 요구하여 제2군단에 인도했다. 이들은 곧 우수문벌목장으로 옮겨져 압송되어 노력대원(노동군)으로 강제징역에 처해졌다.



▲ 자료제공 : 윤상원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행사 참관기

한 초보 의병연구자가 만난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

- '홍범도 장군 순국 81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 학술회의' 참관기 -



서 태 원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과과정)

작년 11월 15일 홍범도 장군 순국 81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 학술회의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4)'이 국회에서 열렸다.

먼저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구한말 의병운동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의병들은 내게 늘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홍범도 장군과 그의 동지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 개최 소식을 접하고는 부푼 마음을 안고 학술회의의 현장으로 향했다.

구춘선, 서일, 김좌진을 말하다

홍범도아카데미 반병률 원장(무술국제한국학연구소 소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총 세 명의 인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우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숙화 한국외대 사학과 초빙교수는 「대한국민회 구춘선의 독립전쟁: 이동휘와 홍범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북간도 지역 대표적 독립운동 단체였던 대한국민회를 이끌었던 구춘선의 삶을 이동휘와 홍범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조명했다. 이숙화 교수에 따르면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의 해' 선포 후 구춘선은 이러한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을 충실히 이행코자 했으며, 이에 따라 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국민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홍범도가 국민회 본부가 있던 하마탕에 주둔한 것 역시 이러한 관계의 연장이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장세운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홍범도의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과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이라는 주제로 독립운동가 서일에 대해 소개했다. 장세운 수석연구원은 서일과 홍범도의 관계를 협력과 갈등을 반복했던 동지이자 라이벌이라는 흥미로운 구도로 설명해 눈길

을 끝냈다. 그러면서 비록 갈등을 빚을 때도 있었지만 독립운동과 국권회복이란 대의명분 앞에서 두 사람 모두 아무런 사심이 없었던 영웅이었노라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백야 김좌진의 독립운동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홍범도와 더불어 북간도 지역 무장투쟁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김좌진에 대한 연구 쟁점들을 정리했다. 이성우 연구원은 기존 김좌진 연구의 오류를 열거하며, 독립운동사 연구에 만연한 편향된 해석과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기존 사료가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반복 인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연구자로서 깊이 새겨야 할 문제 제기였다. 이성우 연구원은 독립운동 연구에 있어 실증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학계 전반에 걸쳐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뼈아픈 말을 던지기도 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 토론을 맡은 양수연 전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병기 전 광복회 학술원장, 김용달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각각 자신이 토론을 맡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코멘트로 논의의 풍부함을 더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에서도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국군의 날’ 제정과 관련한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한 청중이 “국군의 날을 국군의 뿌리인 한국광복군 창설일(9월 17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길게 보면 1920년 임시정부를 봉대하며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군 단체들이야말로 국군의 뿌리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향후 국군의 날 개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었다.

의병연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다

필자 역시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신진연구자로서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가르침들이 많았다. 먼저 독립운동가들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다.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저평가되는 현실은 분명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무비판적으로 우상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되, 학문적 엄밀함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반병률 원장이 강조한 대목도 인상 깊었다. 반병률 원장은 “학술회의는 기존 주장만 반복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술회의 본연의 취지와 방향의 준수를 강조했다. “학문은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학술회의는 그러한 새로운 주장과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내게 목직한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한편으로 독립운

동사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결과, 잘못된 연구가 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역사학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여러 학술회의에 참여해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많은 배움을 얻었는데,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 얻어갈 점이 많았던 것 같다. 나의 연구관심사와 연결된 선배 연구자들이 유독 많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신진연구자 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세대와 관점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활발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면 학문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연구자로서 앞으로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고민해보게 됐다.

끝으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단순한 영웅 서사로 기억하기보다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번 학술회의는 그런 균형 잡힌 시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자리였다. 나는 이 자리를 통해 단지 과거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 연구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찰해볼 수 있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배운 가르침을 토대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항일의병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역사학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노라 다짐해본다.

행사 참관기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제작 발표회에 다녀와서



정 우 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함께 대한민국 군인의 뿌리를 살 펴보는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제작 발표회가 2025. 1. 15(수) 광복회관에서 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제작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광복 80주년인 올해 8월 15일 개봉을 목표로 제작을 시작하였다. 제작을 준비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1, 2, 3대 이사장이신 이종찬 광복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홍근 국회의원과 나레이션을 맡아주신 조진웅 배우의 인사말과 영화 제작을 맡으신 문승욱 감독의 영화에 대한 설명 및 기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발표회는 당초 진행시간보다 30분 이상 늦게까지 진행될 정도로 참석자들은 영화 제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홍범도 장군의 위대한 업적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유해 봉환, 탄신일, 서거일 등의 기념 행사와 함께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밝혀내는 학술행사를 꾸준히 해오면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오랫동안 널리 기려야 할 정신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의병-독립군-광복군이 대한민국 군인의 뿌리임을 알려주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이회영,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정부가 2023년 이전 시도하는 반역사적인 일이 벌

어지는 가운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그동안 축적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업적 연구는 빛을 발하여 역사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있다. 이번 역사전쟁으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업적이 많은 미디어 매체로 알려지고 관심도 높아져 홍범도 장군에 대한 소설, 비보이 공연, 아동역사도서, 음악극 등으로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제작 발표회에 다녀와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펼쳐감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은 며칠 전 봤던 영화 “하얼빈”을 보고 나오면서 들었던 여러 생각과 교차되었다. 영화 “하얼빈”은 안중근 장군(1879-1910)의 31년 짧은 삶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극적인 역사적인 장면을 막연히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애국심만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하얼빈 역의 수많은 인파와 수많은 러시아 군대의 경호를 뚫고 1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은 뛰어난 사격술, 대담함, 침착함, 집중력 등 엄청난 준비와 훈련으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다투는 월드컵에서 펠레, 마라도나, 메시와 같은 골 결정력과 같은 실력이 뒷받침되었

음”을 영상으로 내가 그 장소에 있던 것처럼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영화는 2024. 12월 개봉한 이후 20일 만에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숫자만큼 당시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느끼게 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홍범도 장군(1868-1943)은 평범한 평민으로서 나라의 혜택을 받은 것도 없으면서 일제에 의해 열악해지는 일반 백성들과 함께 헤쳐 나가는 선구자적인 삶을 시작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전면으로 나서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끝까지 일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날까지 옛 소비에트 연방 동포들에게서 지극하게 존경받는 삶을 보냈다. 홍범도 장군의 오랜 삶은 우리가 만들어 나갈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홍범도 장군의 훌륭한 정신을 파급력 있는 문화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알릴 수만 있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삶과 생애를 단순히 기념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문화 매체 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독립군>의 사전 예고 영상을 보면서 홍범도 장군의 군대가 의병과 독립군을 거치는 동안 모든 참여자가 얼마나 평등하고 민주적인 군대였는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얼마나 선진적인 군사 전술을 활용하였는지를 보여주며 군사학(軍史學)적으로 전술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군대였는지를 문헌상의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특수전 전·현직 군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 군대의 뿌리인 독립 민병대와 프랑스 군대의 뿌리인 프랑스 혁명의 민병대와 같이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의병으로부터 시작되어 독립군, 광복군으로 발전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요즘 계엄 정국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와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을 시작으로 홍범도 장군과 독립군에 관련한 인물·역사 콘텐츠가 씨앗이 되어 천만 영화, 최고의 흥행 뮤지컬, 스테디셀러 아동위인도서 등등의 문화 매체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쉽게 가까이서 접하고 느끼며 실천하는 그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 참관기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참관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고문)

광복회(회장 이종찬)에서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27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기념식과 “미래 100년을 향한 뉴 비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및 광복회원과 독립운동단체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일제의 밀정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여 식민지근대화론과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질책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지난해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우지 말라고 외쳤다”고 지적하고,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사업이 광복회의 첫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복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

로서 비상시국에 몸을 던져 선열들이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역사왜곡과 독립운동 폄해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는데 광복회가 크게 기여했다”며 독립운동 정신이 사회발전의 힘이 되도록 광복회가 구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광복회는 이날 미래 100년을 향한 광복회 비전으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위대한 유산인 포용과 통합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우리 사회의 이념대립과 계층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포용 사회 구축을 향해 국민화합에 앞장선다”고 결의했다.

또한, 독립운동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파수꾼이 되고, 남북한의 분단극복과 한반도 통일의 큰 비전을 품고 한민족 공동체 의식과 동포애를 지속적으로 발휘하여 평화적인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광복회원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국가 원로기관이 되도록 소임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박홍근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여하여 홍범도 장군의 위상을 높인 자리였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창립 이사장이었고, 축사를 하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2대 이사장이었으며, 이날 홍범도장군상을 수여하신 분이 제3대 이사장, 박홍근 국회의원이었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이날 기념식에서, 광복회원 중에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홍보하는데 공로가 많은 노송달 고려인협회 전 회장을 표창하였다. 노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려인협회를 조직하여 모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의 위상과 지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홍범도 장군을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승화시켰다.

광복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다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는 기미년에 세운 대한민국을 재건한다고 밝혀,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소위 뉴라이트 계열 인물과 건국절 주장자들이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 건국절 파동으로 건국대통령 추앙과 친일파 찬양, 식민지근대화론 주장 등과 얽히면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박정희 대통령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강점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1910년 경술국치 등 모든 조약은 강제로 체결되어 국제법상 원천무효라고 명시하였다.

조선 왕정이 종식되고 “제국에서 민국으로” 넘어간 분수령이 1919년이었다.

이승만 제헌국회 초대 의장은 제헌국회 개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 연호 사용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대통령 취임 후 발간한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고 못 박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계에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계승한다고 정리했는데, 그런데도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일제 식민통치를 합법화시키려는 반역사적 책동이다.

일부에서 국민, 영토, 주권 등 국가의 3요소를 내세워, 임시정부를 원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는 일제 강점으로 국내에 정부를 세우지 못했지만 임시정부의 헌장(헌법)에 국민, 영토, 주권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건국일을 1776년 7월 4일로 했는데, 이날은 식민지 13개 주 대표들이 독립선언을 한 날이다. 미국은 1783년 파리조약에 따라 독립을 승인받아 1789년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정부를 수립하여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였다. 프랑스도 프랑스혁명이 시작된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을 건국기념일로 정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일부 뉴라이트 인사나 친일적인 건국론자들의 억지 논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도록 함께 매진해야 될 것이다.

한 개인의 청산리 독립전쟁, 기증자료로 다시 살아나다 - 우봉 홍충희



김 용 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 박사 수료)

1. 망각의 기억에서 역사적 부채의식으로

지난 국방부로부터 촉발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쟁은 국가 정체성과 국군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현재 육사 총무관 앞에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및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되어 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 생도들이 훈련 중 쓴 탄피를 녹여 만들어진 것이다. 300kg의 탄피를 녹여 제작된 이 흉상은 그 자체로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을 맞서 싸운 독립군의 정신과 군인의 명예를 기리는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조형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 등을 비롯하여 이름없이 산화한 무수히 많은 ‘무명(無名)’의 헌신을 기리기 위함이다. 육사 내 설치된 흉상은 곧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졌던 독립군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들 독립군에는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있는 반면에, 아직 이름조차 생소한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기록

하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후대가 짊어져야 할 당연한 ‘역사적 부채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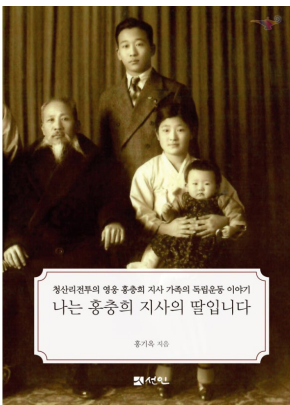
필자가 청산리독립전쟁에 참전하였던 무명의 한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에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는 후손으로부터 문서하나는 기증받았다. 우봉(禹峰) 홍충희(洪忠喜, 1878-1946)의 이력과 활동에 관하여 정리된 문서의 사본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홍충희이라는 이 낯선 이름의 인물은 누구일까?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홍충희는 서울 종로구 도염동(都染洞) 사람이고, 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 부위(副尉 : 오늘날 중위)로 근무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북간도로 망명하였다. 같은해 8월에 서일(徐一)·현천묵(玄天默)·김좌진(金佐鎭)·계화(桂和)·이장녕(李章寧)·김규식(金奎植)·이범석(李範奭)·조성환(曹成煥)·박성태(朴性泰)·정신(鄭信) 등과 함께 길림성 왕청현 서대파구(吉林省 汪清縣 西大波溝)에서 정의단(正義團)을 개편하여 대한군정부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12월에 대한군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임시정부 「국무원령 제205호」에 따라 대한군정서(大韓軍政署)로 명칭을 다시 바꾸었다. 우리가 흔히 북로

군정서(北路軍政署)로 알고 있는 부대가 바로 이 대한군정서이다. 이는 남만주의 서로군정서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름 붙여진 것이다. 특히 홍충희는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리(靑山里) 독립전쟁에 대대장 서리겸 제2중대장으로 김좌진·나중소(羅仲昭)·박영희(朴寧熙) 등과 함께 참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후 대한독립단에 합류하여 러시아 등지에서 계속 활동하였다고 하는데, 이후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고 나와 있다.

2. 북로군정서 편제와 홍충희의 청산리 독립전쟁 참전 전후 행적

2022년 12월 8일 홍충희의 외손자 이응만에 의해서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다.¹⁾ 문서는 모두 6장으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서의 6장 가운데 전반의 4장은 주로 홍충희의 청산리 전투 전후 행적을 담고 있고, 나머지 2장은 신민부(新民府) 산하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귀일당(歸一黨)'에 관한 내용과 청산리 독립전쟁의 전반적인 전투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 중간 중간에 홍충희의 한자 이름에 붉은 동그라미가 있다. 이는 기증자 이응만이 외할아버지(홍충희)의 이름에 표시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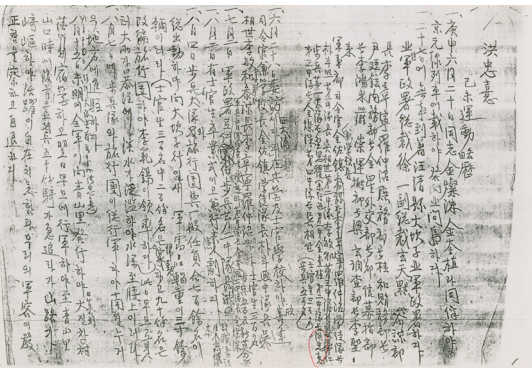


이응만에 의하면 원본은 기증자의 삼촌이 보관하고, 본인은 사본을 받아서 소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삼촌의 자택

1) 2024년 8월에 홍충희 지사의 딸인 홍기옥 여사가 아버지의 삶과 독립운동, 가족들의 생활에 대해서 회고한 책이 출간되었다(홍기옥, 『나는 홍충희 지사의 딸입니다』, 선인문화사, 2024.).

에서 보관 중이던 원본이 분실되어, 현재 이응만 본인이 소장한 사본만이 남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의 필적은 홍충희의 친필이라고 하였으며,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청산리전투 및 대중교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해당 문서의 글씨가 정자체와 필기체 중간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탈초가 불충분하다. 하지만 홍충희의 1920년 청산리 전투 전후의 행적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소개해둔다. 작성은 홍충희가 간도(間島)로 도항하게 되는 1920년 6월부터 시작된다.



一. 경신 6월 20일 동지 김찬수(金燦洙), 김규식(金奎植)과 동행하여 경원선 열차에 재하여 간도(間島)로 향했다.

一. 27일에 왕청현(汪淸縣) 대○자(大○子) 군정서에 무사 도착하다.
군정서 총재 서일(徐一), 부총재 현천묵(玄天默), 참모부장 이장녕(李章寧), 나중소(羅仲沼), 서무부장 계화(桂和), 재무부장 윤달현(尹達鉉), 내무부장 김성(金星), 외교부장 정신(鄭信), 모지부장(募指部長) 이홍래(李鴻來), 엄송(嚴崇), 운반부장 양현(梁玄), 조사부장 이성래(李聖來), 군사부 사령관 겸 학교장 김좌진(金佐鎭), 참모장 이장녕, 나중소, 학도대장 박두희(朴斗熙), 제1중대장 오상세(吳相世), 제2중대장 이민화(李敏和), 제3중대장 姜華仁, 보병 제1대대장 ○사직(○思稷), 제1중 김규식, 제2중대장 홍충희(洪忠熹), 제3중대장 김찬수, 제4중대장 오상세(사관생 300명, 보병 500명).

一. 6월 28일 서대파(西大浦) 병영과 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사령관 겸 학교장 김좌진, 학도대장 박두희, 중대장 오상세, 이민화, 참모장 이장녕, 나중소가 환영해준다. 사관생 300명, 군병 육성의 60인을 받아들인 바, 제1중대장 김규식 보병 500명, ○募者 제3중대장 김찬수

一. 7월 2일 군정서로서 보병 제2중대장 홍(洪)을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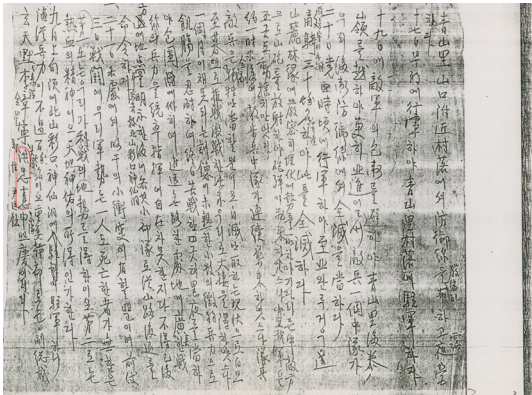
一. 8월 2일 위 사관생도 졸업식이고, 겸하여 연극행사를 하였다.

一. 8월 4일 보병대대와 ○행단○, 일반임원 함께 7백여 명이 총출동하여 향대○자 行일새 군수품 치중(輜重)이 30○輛이라(사관생 3백명 중 2백여 명은 귀가하고 90여 명은 ○행단으로 개편하여 이범석(李範錫)이 영솔하다). 3일 이른 아침으로부터 대소가 暴○에 ○수가 범람하여 수량이 허리 위까지 이르다

一. 8월 7일에 보병대와 ○행단이 총행군하여 十 누거우 지방에 진주(進駐)하다.

一. 8월 15일 來明에 전군이 청산리로 향하여 대전창 村落에서 宿○하고 내일 이른 아침에 행군하여 청산리 산 입구에 이를 때에 ○○○○ 强兵 50여 騎가急追다가 山路가 崎嶇하여 活躍이 自在치 못함과 우리의 軍容이 嚴正함을 察하고 自退하다.

一. 靑山里 山口 附近 村落에서 防禦線을 嚴○○布하고 露夜營하다.



一. 17일 이른 아침에 행군하여 청산리 촌락에 駐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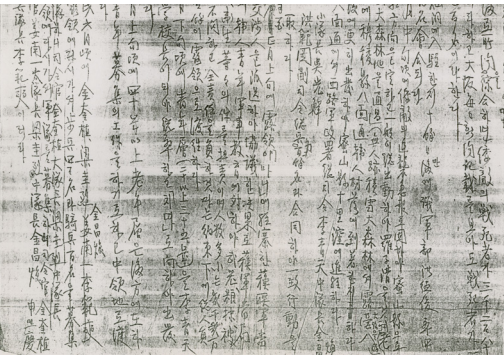
一. 19일에 적군의 包圍를 避하여 청산리 後泰嶺를 越하여 ○히 業進일새 敵兵 一個中隊가 우리 後邦 防禦線에서 全滅을 當하다.

一. 20일 ○ 四時頃에 行軍하여 至業 완루거우 敵射 三十餘 名을 ○하여 此를 全滅하다. 山麓 林緣에 嚴密히 埋伏에 勢를 所하여 기다리든 中 敵方으로 山砲를 放射하여 砲彈이 ○○하얏스나 ○도 我軍은 조금도 動搖치 안었다. 約 一時間後에 敵歩兵中隊가 連續 襲擊하얏스나 ○병 全滅

一. 敵兵은 犧牲만 當할 뿐이오 自滅만 所하는 ○○으로 ○○ 至暮으로 抗戰 激戰한 ○○ 우리로 大捷을 得하얏스나 一個月이 채 못되는 訓練이 未熟한 小數의 微弱兵力으로 飢腸을 ○耐하며 終日 苦戰한 곳데 黑夜를 當하여 包圍에 싸히어 進退를 ○한 處地에 廣長한 戰後의 兵力을 統率 指揮에 自在치 못한지라. 不得已 後方에 地点(延吉縣 北山彩口 神仙洞)을 明示한 後에 各 ○小部隊로 ○山路 後退를 命令하다.

一. 二十一日 各處에서 ○간의 小衝○이 有할 뿐이며 前 ○ 三日戰鬪에 우리 軍勢는 一人도 死亡한 者가 無함은 第一로는 우리가 利戰의 地勢를 得함이오. 第二로는 熱血의 精神이오. 天地神佑의 所得인가 한다.

一. 九月 上旬頃에 北山彩口, 神仙洞에 駐軍하니 ○○兵力이 ○○百○名이오. 重要幹部로는 副總裁 玄天默, 李章寧, 金星, 鄭信, 尹匡鉉, 洪忠憲, 申熙慶이더라.



一. 戰○楊徐가 不○함에 따라 追後로 所聞을 綜合하면 倭敵의 戰死者가 三千二百八十名이라 하고 大韓毎日新聞 記載를 보아도 戰死者가 一千七百名이라 한다.

一. 神仙洞에 入駐한지 十餘分만에 我軍部 ○○○ ○○ 十餘名 會合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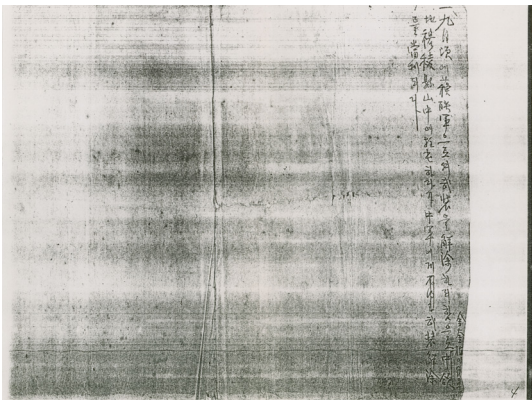
一. 十一月 中旬頃에 倭敵의 追○不急報로 聞하야 密山縣으로 進駐方向을 ○하고 一般이 總出動하야 羅子溝를 越○老里山 大森林地를 通過(無人跡積○ 大森林에서 露營 大○을 ○)日 만에 ○稜○八○道 韓人村落에 到着하다. 三日後에 更히 出發하야 蜜山縣 十里窪에 進駐하다. 俚八○通에서 西路軍政署 總司令 李青天 中隊長 金昌煥 小隊長 吳光鮮 洪範圖 副司令 總兵力 百餘名과 合同하야 一致行動을 取하다.

一. 陰 ○○ 正月 上旬에 露領○마니에 ○塞한 蘇聯軍政局 交渉人을 派遣하야 協議한 結果로 蘇軍 當局에서 韓人青年 軍事教育에 對하야 武器, 糧秣, 被服, ○生等々の 件를 担責이며 人數 多小는 ○千○万을 不問하고 全責任을 負하겠다는 拘束下에 總人員으로 特이 露領으로 渡航하다

一. 二月 下旬頃에 青年層(二十以上三十五以下)을 李青天이 學校長이 되야 院○하고 「치따」로 向하야 出發하다.

一. 三日 上旬頃에 四十歲 以上 老軍層은 後方에도 하야 青年 募集의 工○을 하기로 하고 中領地로 渡하다

一. 壬戌 六月 頃에 金奎植, 梁圭烈, 金昌煥, 姜南一, 李範奭이 露領에 다시 가서 步兵 四百名과 騎兵 百名을 募集 編隊하니 司令官 金奎植 大隊長 梁圭烈 中隊長 副官 姜南一 大隊長 梁圭烈 中隊長 金昌煥 申熙慶 騎兵○兵 李範奭이러라.



홍충희는 북로군정서(=대한군정서) 창설 당시 대대장 서리 겸 제2중대장을 역임하였다. 북로군정서는 북간도에 편성된 여러 독립군 부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진 독립군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북로군정서는 1910년 직후 조직된 대중교의 중광단(重光團)이 발전한 것이다. 중광단은 1919년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전쟁’을 표방하며 중국 동북 일대의 대중교 신도와 복상한 의병 및 공교회원(孔敎會員) 등을 규합하여 정의단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정의단은 같은해 8월 ‘군정회’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고 왕청현 춘명향(春明鄉) 서대파(西大坡)에 본영을 두었다. 이어 군정회는 10월에 군정부로, 그리고 12월에는 임시정부의 권고로 ‘군정서’로 재차 명칭을 변경하였다.²⁾

북로군정서 사령부에서 활동한 주요 간부들을 살펴보면, 총사령관 김좌진, 참모부장 나중소, 부관 박영희(朴寧熙), 연성대장 이범석, 중군장교 이민화(李敏華)·김훈(金勳)·백중렬(白鍾烈)·한건원(韓建源), 대대장 서리 제2중대장 홍충희(洪忠憲), 제1중대장 서리 강화린(姜華麟), 제3중대장 김찬수(金燦洙), 제4중대장 오상세(吳祥世), 대대 부관 김옥현(金玉玄) 등이었다. 북로군정서의 병력은 그 해에 사관연성소를 졸업한 298명을 포함해 편제상으로는 약 1,600명이었다. 다만 실제 총병력은 약 1,100명, 정예병은 600여 명이었으며, 무기는 소총·권총 등 총기 약 800정, 기관총 4문, 포 2문, 수류탄 약 2,000개 등으로 탄약 등을 합치면 우마차 20여 대에 실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갖추고 있었다.³⁾

3. 귀일당(歸一黨)의 실체와 청산리 독립전쟁

북로군정서는 1919년 12월 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정부’에서 ‘군정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것은 남만주 독립군단체였던 ‘서로군정서’의 경우와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북로군정서는 북간도 독립군 가운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부대로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더불어 북로군정서는 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간도 지역의 한인들을 기반으로 항일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북로군정서는 군정과 민정의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었는데, 총재부가 민정을, 사령부가 군정을 담당하였다. 이는 헌신적이며 유능한 대중교 지도자 총재 서일(徐一)과 강력한 무장 투쟁론자이자 패기에 찬 젊은 무장, 독립군 사령관인 김좌진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북로군정서 중앙조직은 총재 밑에 부총재를 두고 서무부·재무부·사령부 등의 각 부서를 설치하였다. 북로군정서 총재부 소재지는 중국 연변의 왕청현 춘명향 덕원리였다. 사령부 소재지는 왕청현 춘명향 서대파로, 오늘날 왕청현 동광향(東光鄉) 서대파촌이 해당된다.⁴⁾

이처럼 북로군정서의 운영체계와 조직은 간도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일관되게 항일 독립전쟁을 치루기 위한 포석이었다. 다시 말해 일선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독립군의 군사 활동은 후방에서 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간도 한인들의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두터운 민정의 조직과 운영이 없고서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민의(民意)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는 정당(政黨)의 운영으로 발전하였다. 다음의 홍충희 친필문건에는 이와 관련하여 ‘귀일당(歸一黨)’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一. 倭達族 精神을 鞏固함으로써 自由를 恢復하고 祖國을 光復할 것.
一. 우리 文化를 扶揚하여 世界에 福利를 普及할 것.
右 發起人 玄天默 桂和 鄭信 尹廷鉉 金星 梁玄 等

開天 四三七六年 三月 一日 民族自由를 基한 萬世運動으로 始하여 全年 三月 一日에 組織宣誓式을 天神께 行하고 右黨○는 潛勢로 두기로 하고 孔敎會派와 (本黨은 大宗教派) 合同하여 正義團을 組織하였다. 그 後에 兩派의 ○見方針과 ○他關係로 今초되어 歸一黨은 軍政會로 孔敎派는 光復團으로 各々 組織할 時에 徐一을 軍政會 總裁로 推選되어 徐一은 不得已 大宗教 復興○를 辭免하고 歸一黨과 軍政會의 首席의 任을 맞고 다시 軍政會를 軍政府로 改稱하였다가 臨時政府 命令에 依하여 北路軍政署로 變稱게 되었다. 그 部○組織은 首席으로 總裁 徐一 副總裁 玄天默 庶務部長 桂和 財務部長 尹廷鉉 內務部長 金星 外交部長 鄭信 募指部長 李鴻來 嚴崇 運搬部長 梁玄 調查部長 李聖來 軍事部 總司令 金佐鎭 參謀長 李章寧 羅仲沼 「金思稷 洪忠憲 金奎植 金燦洙 李範奭 朴斗熙 吳相世 李敏和 李雲岡 申熙慶 姜華仁」

汪清縣 西大浦 大森林中에 軍司令部와 兵營及士官學校를 置하야 士官生 三百名을 育成하니 校長 金佐鎭 學徒隊長 朴斗熙 第一中隊長 吳相世 第二中隊長 李敏和오

步兵大隊長 金思稷(行公지 아니함) 第一中隊長 金奎植(大隊長 代理를 行) 第二中隊長 洪忠憲 第三中隊長 金燦洙 第四中隊長 吳相世(學徒○中隊長 解任後) 步兵의 總兵力 五百名 이다.

위 문건은 귀일당의 설치 목적을 알 수 있는 강령(綱領)과 귀일당 조직 이래로 북로군정서가 창설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귀일당의 실체를 알려줄 수 있는 강령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귀일당은 정식 명칭 ‘한국귀일당(韓國歸一黨)’으로 1926년 9월 영안현 영고탑에서 결성되었다. 주요 간부는 정신·유운초(劉雲樵)·신영빈(辛英彬)·장준걸(張俊杰)·조관(趙寬) 등이었으며, 1천여 명의 당원을 두고 있었다. “귀일(歸一)”이란 이름을 사용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2) 장세윤,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 선인, 2021, 1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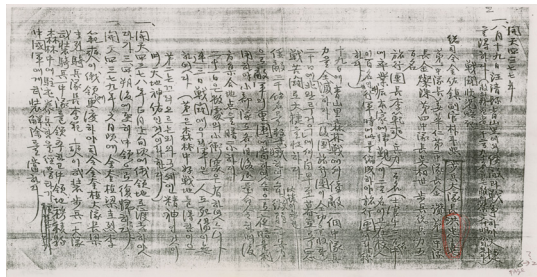
3) 장세윤, 위의 책, 247쪽.

4) 장세윤, 『대중교 독립운동 지도자 서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92~94쪽.

한국귀일당은 대중교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영안현·위하현·밀산현 일대의 신민부 군정파에 기반을 두었다.⁵⁾

그러나 홍충희 친필문건에는 귀일당의 결성이 정의단(正義團) 조직 이전으로 보고 있다. 1919년 8월에 조직된 정의단은 중광단(重光團, 1911)을 기초로 확대 발전한 것이다. 홍충희의 친필문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귀일당은 최소한 1919년 8월 이전에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려 7년이라는 격차가 존재한다.

독립군 단체의 정당을 통한 군정부 운영은 1920년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이당치국(以黨治國)’의 운영원리는 국내외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는 좌·우 합작의 결과물이었다. 이는 정의부(正義府, 1924)의 ‘고려혁명당’이나 신민부(新民府, 1925)의 ‘고려국민당’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군정부가 공화주의 이념과 주권재민의 원리에 입각하여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귀일당의 조직 시기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자료 확보와 사료 비판을 통해서 검증해야 할 것이다.



開天四三七年

一. 八月十九日 汪清縣 靑山里에서 倭敵과 戰爭하야 大捷을 得하다(敵의 殺傷者 三千二百九十名임은 敵의 發文에 明示되였다)

戰鬪狀況略○

總司令 金佐鎭 副官 朴斗熙 步兵大隊長 洪忠憲 第一中隊長 姜華仁 第二中隊長 金讚 第三中隊長 金燦洙 第四中隊長 吳相世 步兵 總兵力 五百名

旅行團長 李範奭 兵力 一百名(士官生 三百名中에 卒業 后 本家에 歸觀人이 二百名이고 在校人이 百名인데 行軍時에 此를 編成하야 旅行團이라 稱하다)

十九日에 靑山里 森林戰에서 倭敵 一個中隊 兵力을 全滅하다(○○旅行團이 全功을 收함)

二十日에 「北完루거우」에서 自早至暮도록 惡戰苦鬪로 大捷을 收하다.

倭敵 三千餘 名을 擊滅하였으나 微弱한 兵力으로 敵軍의 重圍에 當하였으므로 夜暗을 利用하야 小部隊로 各自 後退를 命令하며 後方集合地點을 暗示하다.

二十一日은 數處의 小衝突은 有하였으나 連三日 戰鬪에 우리 軍은 一人도 死傷이 無하였다(第一은 森林中 好戰地를 得함이오 第二는 끄러오르는 피와 긋세인 精神인 것이며 天地神佑인 것이라 한다)

一. 開天 四三七八年 正月上旬頃에 俄領地로 渡去하였다가 三, 四, 朔後에 更히 中領으로 復歸하다.

一. 開天四三七九年 六月頃에 金奎植 梁圭烈 李範奭이 俄領에 更渡하야 司令 金奎植 大隊長 梁圭烈 騎兵隊長 李範奭이 武裝 步兵 一大隊 武裝騎兵 一中隊를 領率하고 中領地 穆陵縣 森林中에 駐屯 養兵함을 經營타가 中國軍에게 武裝解除를 當하다.

다음 문건은 귀일당 강령과 북로군정서 조직 현황을 서술하고 나서 청산리 독립전쟁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개천(開天) 원년을 기준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천’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다. 이는 단군 원년과 다른 개념이다. 단기(檀紀)의 경우, 해당 사건의 발생 연도에 2,333년을 더해지면 된다.

위 문건에서 말하는 ‘개천’이란 단군왕검의 아버지인 환웅(桓雄)이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오늘날 묘향산) 정상에 신시(神市)를 개창한 날을 의미한다. 이를 기준으로 서기(西紀)로 환산하면, 해당 연도에 2,457년(2,333+124)을 감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개천 4377년이라면, 4377년에 2,457년을 빼면 1920년이 나온다. 이를 통해서 북로군정서와 귀일당 등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밝혀졌듯이 대중교 중

심의 독립운동 단체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홍충희 친필문건에 나온 개국 연도를 계산해보면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밝혀진대로 연도가 일치한다. 다만 월, 일 단위는 기존에 밝혀진 날짜와 다르게 도출된다. 해당 문서는 청산리 독립전쟁에 직접 참여하였던 독립운동가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청산리 독립전쟁과 대중교

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역사적 사실로서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한 사료 비판과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민족주의운동 및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대립과 연대를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1999, 123~124쪽.

봉오동 전투 승전일을 ‘국군의 날’로 삼자



김 경 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 /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12.3 비상계엄’이라는 불법적 친위쿠데타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파괴를 시도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신념으로 하나가 된 우리 국민들이 겨우내 광장을 지킨 결과 쟁취한,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뿌리내린 신규식, 손정도, 이동휘 선생과 임시정부의 헌정 질서를 교란한 이승만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문일민 선생, 이승만 탄핵 후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박은식 선생 등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순국선열들의 묘역을 찾아 술 한 잔 올리며 이날의 승전보를 고했다.

무후선열제단 내 홍범도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던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술잔을 올리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인사드렸다. “홍범도 장군님, 저희가 해냈습니다. 저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이날 올린 술은 그동안 육군사관학교의 홍상 철거 시도 등으로 마음고생 많으셨을 홍범도 장군께 바치는 위로주이자 축하주였다. 육사의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시도는 윤석열의 파면으로 백지화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국군의 ‘독립군 계승’을 명확히 하자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쉬기엔 이른 감이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시도를 묵도하면서 우리는 다음에 또 어떤 지도자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훗날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역사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문화하여 대한민국의 뿌리를 분명히 했던 것처럼, 우리 국군 역시 독립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시도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발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마침 현재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해당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규정한 「국군조직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반영하여 우리의 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군조직법」에서 우리 군이 독립군의 후예임을 명확히 한다면, 우리 군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을 흠대하는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봉오동 전투 승전일을 국군의 날로

더 나아가 ‘국군의 날’ 변경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다. 6·25전쟁 당시 육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 국군의 날은 우리 군의 뿌리와 정통성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아래 다른 날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10월 1일 대신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기념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당시 두 번, 문재인 정권 당시 두 번 총 4번이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표결에도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군의 날을 독립군 관련 기념일로 변경함으로써 역사적 정통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기왕 독립군 관련 기념일로 변경코자 한다면, 광복군 창설일보다도 더 우리 군의 뿌리를 확실히 하고, 광복군 창설 이전에 활동했던 여러 독립군 단체들의 무장투쟁사를 기억할 수 있는 날짜로 바꾸는 게 어떨까.

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국군은 맞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대한민국의 첫 군대는 아니었다. 이미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와 러시아령 일대에서 약 40여 개의 크고 작은 독립군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단체들 중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의 통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단체명을 바꾸거나, 임시정부의 지휘에 따라 독립군 통합운동에 동참하는 이들도 많았다. 서간도의 서로군정서, 북간도의 북로군정서가 대표적이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첫 군대라

고 할 수 있다. 국군의 날을 1940년에 창설된 광복군 창설일로 함으로써 굳이 우리 스스로 국군의 역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삼는다면 광복군과 별개의 정체성을 갖고 화북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조선의용군의 역사를 국군의 역사에서 배제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날을 국군의 날로 기념해야 할까. 필자는 봉오동 전투 승전일인 6월 7일을 국군의 날로 삼자고 제안하고 싶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최진동, 안무, 박승길 등이 이끄는 대한북로독군부와 신민단, 의군부 등 우리 독립군 단체들이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퇴한 전투였다. 1920년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원년’ 선포 후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대규모 전투를 벌인 끝에 거둔 첫 승리였기에 임시정부는 봉오동 전투를 ‘독립전쟁의 제1회전’으로 기록하며 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첫 군대로서 일본군과 싸워 승전고를 올렸던 봉오동 전투야말로 우리 군의 뿌리와 자긍심을 기념하기에 적절한 사건 아닐까. 아울러 광복군 창설 이전 만주와 러시아 일대에서 활동했던 우리 독립군을 기리는 의미도 있다.

봉오동 전투 승전일을 국군의 날로 삼는다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문화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이는 우리 군의 뿌리와 정통성을 굳건히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누구도 감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홍상을 철거하겠다는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 따위는 하지 못하리라.

1920년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원년’ 선포 후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대규모 전투를 벌인 끝에
거둔 첫 승리였기에
임시정부는 봉오동 전투를
‘독립전쟁의 제1회전’으로 기록하며
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청년조직 Doknip-Patriot 국제화상회의 후기 위대한 나무의 뿌리



허 올 레 그 (김경천 독립운동가 후손)

3·1 독립운동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한다면, 이 나무는 세계 여러 나라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증거로, 2025년 3월 1일 독립운동가 후손 청년 조직인 Doknip-Patriot가 개최한 국제 화상회의를 들 수 있다. 이 화상회의에는 카자흐스탄, 한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에서 온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Doknip-Patriot는 오늘날 고려인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한민국 독립 영웅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는 데 귀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고려인협회와 같은 조직들이 역사적 고국인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번 화상회의에도 참여하였다.

대한고려인협회는 현재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제작을 후원하고 있다. 이 영화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와 같은 역사적인 전투들을 재조명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홍범도 장군을 통해 고려인들의 독립운동 공적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광복회의 공동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화의 개봉일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한고려인협회의 정영순 회장은 연설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세계에 고려인의 진정한 역사를 알릴 수 있고, 영웅들의 기억을 지키며 다음 세대가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Doknip-Patriot 소속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후손인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발표했다. 미란 리(Miran Lee), 김 데니스 김(Denis Kim), 미흐뉴크 바실리나 (Vasilina Mihnyuk), 노 알리사 (Alisa Noh)는 선조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전했다. 러시아에서 온 갈리나 필란스카야(Galina Filanskaya), 에벨리나 샤라피예바(Evelina Sharafieva)는 학생 운동에 참여한 김경천의 일기를 읽으며 서울 학생 운동의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였다. 이 청소년들의 발표를 통해, 비극적인 강제이주와 NKVD(소련의 보안기관)의 박해 속에서도 곳곳

이 살아남은 고려인들의 가슴 아픈 역사가 드러났다. 이들은 모국으로부터 먼 땅에서 피와 눈물을 흘린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한국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리아 피스쿨로바(Yulia Piskulova), “1910-1945년 한국 독립운동 참여자 후손 협회” 대표는 화상회의라는 형식이 각국 후손 단체 간 소통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Doknip-Patriot의 헤가이 스베틀라나 (Svetlana Hegai)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교육 사업들을 언급했다. 2022년 8월 바스토베 산에 독립운동 기념공원이 개장되었고, 알마티 근교에는 독립운동 영웅을 기리는 기념식수 행사가 있었다. 또한 고려극장의 지원으로 “발화(Вспышка)”라는 텔레비전 공연도 제작되었다. 이 모든 일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원로인 우헤노비치 (Roman Uhenovich Kim)가 이끄는 후원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특히 국가보훈부도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영웅들의 명예회복과 역사 바로세우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 데니스는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은 문화, 교육, 역사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Doknip-Patriot 운동은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연설에서 강조하였다.

회의 중 한국의 유가이 스베틀라나 (Svetlana Yugai)와 러시아의 마 안나 (Anna Ma)는 서로가 독립운동가 마춘게(마충결)의 후손임을 발견하는 뜻깊은 순간도 있었다. 대한고려인협회 소속 독립운동 후손 협회의 대표인 유가이 스베틀라나는 옛 소련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영웅 7인의 위패가 2024년 10월 17일에 국립 서울 현충원에 모셔졌으며, 2025년에는 각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기념 달력도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2025년은 한국인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해이다. 바로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영순 회장은 “이 날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억하는 날이며, 특히 일제강점기 연해주 지역에서 고려인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다시금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회의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자,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과 이해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려인 동포 소식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후원 소식 홍범도장군은 우리 모두 마음 속에 살아있습니다



정영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사 / 대한고려인협회회장)

역사 속에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비추는 거울 같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고려인에게 그는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선조의 상징이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며, 지금 우리 존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뜻을 품고 스스로 연해주로 갔고, 이후 수많은 고려인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습니다. 그의 삶은 곧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 이주와 박해, 생존과 정착, 침묵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존엄의 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장군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지 한 인물을 기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고려인 전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야기, 다시 꺼내야 할 자부심, 그리고 전할 책임이 있는 유산입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영화 제작 소식을 접하자마자 가장 먼저 후원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목

소리를 되찾고,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새기며, 다음 세대에 기억의 불씨를 전달했습니다.

이 뜻에 공감한 여러 고려인 단체와 개인들이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자발적으로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k Alexander :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 모스크바지부 대표

- Piskulova Yulia : 독립운동가 이범진과 이위종의 후손, '1910-1945 독립운동가 후손단체' 대표, 모스크바

- Filyanskaya Galina : 김경천 장군의 후손이자 '1910-1945 독립운동가 후손단체' 회원, 모스크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울린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청소년 단체 '독립-패트리엇(Doknip-Patriot)' 소속 청소년들이 자신의 용돈, 식비, 저금통을 털어 자발적으로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 어떤 연설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 Naurazbaeva Zhanna (Науразбаева Жанна), 계봉우 장군의 고손녀:

“제가 이 영화를 후원하게 된 이유는, 홍범도 장군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를 후세에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는 단지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정의, 리더십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장군이 단지 전설적인 영웅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면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영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가 후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Tsoy Xeniya (Цой Ксения), 최봉설 지사의 고손녀: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산이에요. 이 영화를 통해 후손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Khegay Daniil (Херай Даниил), 김경천 장군의 고손자:

“엄마가 꿈꾸는 영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Li Miran (Ли Миран), 채성룡 선생의 고손녀:

“점심값을 아껴서 후원했어요. 이런 분들을 잊지 않도록 꼭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 김안나 (Kim Анна), 채성룡 선생의 후손:

“저에게 이 후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기억과 존경의 표현이에요. 영화는 역사를 사람들 곁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믿어요.”

영화 『독립군』은 2025년 8월 7일,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날 스크린 속에서 비춰질 것은 단지 한 명의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잊히지 않으려는 고려인의 역사와 정신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시간과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고려인들이 보내온 후원은 금액이 아닌 마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여러분,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범도장군은 우리 모든 고려인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이 될 것입니다.



▲ Zekenove Yana, Khe Uma, Khe Yeva

▲ Tsay Evelina

▲ Serikbayeva Yelena



▲ Min Anton

▲ Kim Katerina, Kim Pavel



▲ Khegay Svetlana

▲ Denis Kim, Sophie Kim

2024년 사업보고

I. 주요사업 목표

1.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정신을 기리고 선양한다.
2. 우리나라 항일 무장독립전쟁의 역사를 국민에게 알린다.
3. CIS 및 국내 거주 고려인동포와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협력하고, 카자흐스탄 민간 외교에 기여한다.

II. 세부사업 내용

■ 공식 행사

1. 봉오동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식

- 가. 목적 : 기념식을 통하여 봉오동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홍범도 장군의 항일 무장 독립정신을 기리며, 독립운동 관련 他 기념사업회와 교류한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4년 6월 7일(금) 오전1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107석)
- 사업내용 : 기념사업회 회원 및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홍범도함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기념식 거행. 100여명 참석.

2. 제4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 가. 목적 : 일제에 맞서 총을 들고 싸운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정신과 리더십을 스포츠 사격을 통하여 널리 알린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4년 6월 5일(수) ~ 11일(화)
- 장소 : 전라남도종합사격장(나주 소재)
- 사업내용 : 대한사격연맹 전종목(14개 종목) 실시, 선수 연인원 2,646명 참가

- 다. 특이사항 : 국가대표 선발전 및 대한사격연맹 공인대회 승격

3. 홍범도 장군 순국 81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식

- 가. 목적 : 기념행사를 통하여 청산리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홍범도 장군의 희생정신을 기린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4시
- 장소 : 국립대전현충원
- 사업내용 : 기념사업회 회원 및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관련자들을 초청하여 추모식 거행

4. 국내 고려인 이주정착 및 역사캠프

- 가. 목적 : 고려인동포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사업을 위한 대한고려인협회와 협력 활성화 및 대전지역모임 활동 활성화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4년 10월 11일(금)~13일(일) (2박3일)
- 장소 : 대전 효문화마을
- 사업내용 : 역사교육, 홍범도장군 묘역 참배

- 다. 시행방법 : 대전 중구청, 대한고려인협회 협업
라. 참가대상 :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 30명(2박3일) 국내 거주 고려인 성인 60명(1박2일)

5. 유해봉환 3주기 기념식

- 가. 목적 :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의 정신을 기린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4년 8월 14일(수) 오전10시
- 장소 : 국립대전현충원
- 사업내용 :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해봉환 기념식 시행

- 다. 시행방법 : 회원 참여

- 라. 참가인원 : 200여명

6. 학술회의

- 가. 목적 :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전쟁의 역사와 그의 동지들의 발자취를 조사하여 그 자료를 발표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나. 사업내용

- 주제 :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4)
- 시행시기 : 2024년 11월 15일(금) 오후 2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사업내용 : 홍범도 장군 동지 3인 선정하여 학술 논문 발표(대한국민회 구춘선 선생, 북로군정서 서일 총재, 김좌진 장군)

- 다. 시행방법 : 3개의 논문 발표

7. 소식지 발행

- 가. 목적 : 기념사업회 활동 소식과 홍범도 장군 관련 교육적 자료를 발행, 배포하여 장군의 정신을 선양하고 기린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4년 봄/여름, 가을 2차례

- 다. 시행방법 : 매 소식지 600부 발행하여 회원 및 관련 단체에 우편 발송

8. 전시회

- 가. 목적 : 만주, 연해주, 중앙아시아, 그리고 고국에서의 홍범도 장군 관련 자료를 총 망라 전시하여 국민들이 홍범도 장군의 업적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및 장소
 - 2024.3.1. ~ 5.19. (식민지역사박물관)
 - 2024.6.5. ~ 6.11. (전라남도종합사격장)
 - 2024.10.21. ~ 10.31. (서울 은평구청 1층 로비)

9. 설/추석 성묘

- 가. 목적 : 유해 봉환 후 지속적 성묘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월 11일 / 9월 18일
- 장소 : 국립대전현충원
- 시행방법 : 대전지역 모임이 주축이 되어 시행

10. 카자흐스탄 방문 및 홍범도 장군 옛 묘비 기증

- 가. 우원식 의장 일정 동반

- 나. 방문지 : 크즐오르다 홍범도장군 기념공원, 크즐오르다대학교, 고려극장 등

- 다. 옛 묘비 기증자 : 김레프

- 라. 시기 : 10월

11. 독립영웅 홍상 완전 존치 촉구 기자회견

- 가. 3.1절 105주년 기념 기자회견

- 시행시기 : 2월 28일
- 장소 :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
- 주관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지청천기념사업회, 이회영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대한고려인협회, 시민모임 독립

- 나. 22대 국회 당선인 기자회견

- 시행시기 : 4월 25일
- 장소 :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

- 다. 육사 내 홍상 재배치 전면 백지화 성명 발표

- 시행시기 : 11월 6일
- 장소 : 광복회관

12. 국군조직법 개정안 상정

- 가. 김광중 이사, 황원섭 고문, 박석봉 이사

- 나. 시기 : 10월

- 다. 주요내용 :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1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

어서 제74조제2항에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군대임. 이를 국군조직법에 명확히 밝히고, 국군의 정통성을 제대로 규정하고자 함.

■ 내부 행사/업무

1. 정기총회

가. 시기 : 5월 29일
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 임시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

가. 시기 : 8월 12일
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다. 독립기념관장 등 역사 왜곡 인사 임명 규탄 긴급 성명 발표

3. 이사회/운영위원회

가. 총 7회
나. 2월 20일 / 4월 26일 / 5월 1일 / 7월 11일 / 9월 26일 / 11월 11일 / 12월 4일

4. 망우역사문화공원 답사

가. 시기 : 8월 3일
나. 박홍근 신임 이사장 초청 행사로서, 유관순, 한용운, 방정환의 묘역과 십삼도창의군탑 등을 둘러보며 선조의 항일독립정신을 함께 기리고, 이사장과 이사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짐.

5. 홍범도를 위한 실증적 변명 강의

가. 시기 : 8월
나. 장소 : 무돌국제한국학연구소
다. 강사 : 반병률 교수
라. 참가 : 편집위원회

6. 전주모임 회의

가. 시기 : 10월 3일
나. 장소 : 전주

7. 엠티

가. 시기 : 11월 23-24일(1박2일)
나. 장소 : 충남 서산

8. 송년회

가. 시기 : 12월 19일
나. 장소 : 여의도 양자강

9. 홍범도 장군 묘역 앞 QR 코드 재 제작

가. 홈페이지 변경으로 방문록 작성을 위한 QR코드 재 제작 및 설치
나. 시기 : 4월

■ 외부기관 협업

1. 홍범도 장군 훈장 회수

가. 보훈부로부터 2021년에 수령한 홍범도 장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회수
나. 시기 : 9월

2. 박홍근 신임이사 이종찬 광복회장 예방

가. 시기 : 9월 2일
나. 장소 : 광복회관

3. 건국기원절(개천절) 행사 참석

가. 시기 : 10월 3일
나. 주최 : 광복회

4. 경향신문 후마니타스 연구소 주관 홍범도장군 유적지 답사

가. 1차
- 방문지 : 중국 동북부, 연해주, 자유시
- 참가 : 홍순계, 박석봉, 김종욱
- 시기 : 6월

나. 2차

- 방문지 : 중앙아시아
- 참가 : 박드미트리(알마티, 크즐오르다, 우슈토베)

5. 국립중앙도서관 종합논문집 납본

가. 의미 : 매년 있는 학술회의 논문을 모아 종합논문집(2010-2016)과 종합논문집(2017-2023)을 만들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 일반인들에게 우리 논문의 접근성을 높인다.
나. 납본시기 : 3월

6. 어린이학습만화 WHO '홍범도' 내용 감수

가. 출판사 : 다산북스
나. 출판일 : 2024년 8월 14일

7. 홍범도 장군 작품 기증

가. 최성길 작가(3월) - 초상화
나. 문빅토르 작가(4월) - 초상화
다. 김지현 작가(5월) - 부조
라. 주환선 작가(7월) - 초상화

8. 홍범도 장군 공연/전시회 관람

가. 산포수 홍장군 : 변사와 영상이 함께하는 합창 드라마(4월)

나. 조선희랑이 : 스트릿댄스 뮤지컬(5월)

다. 수목화 전시회 : 유준작가(12월)

9. 소설 '김가네' 출판기념회

가. 작가 : 김블라디미르(김용택, 우즈베키스탄)
나. 내용 : 고국에서 멀리 떠난 고려인의 삶
다. 출판기념회 시기 : 7월

10. 우즈베키스탄 고려가무단 공연 관람

가. 이경철 이사 진행
나. 시기 : 9월 3일
다. 장소 : 노원어린이극장

11. 한창걸, 한성걸 선생 위패 봉안

가. 주최 : 국가보훈부
나. 시기 : 10월 17일
다.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12. 고려극장 한국 공연

가. 제목 : 구미호의 포옹
나. 시기 : 12월 28일
다. 장소 :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13. 홍범도 연극 협업(2025년 계속)

가. 제목 : 범도(가제)
나. 극단 : 연극저항집단 백치들(대구)
다. 협업내용
- 공연제작 관련 자료 제공(워크샵 등)
- 관객 모집 및 홍보

14.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제작 중

가. 광복회 후원
나. 블루필름웍스 제작
다. 12월까지 시나리오 검토 완료

2025년 사업계획

I. 주요사업 목표

1.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주와 독립의 의미 성찰
2.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 선양사업 추진
3. 대한민국 국군 정통성 확립 사업 추진
4. 한국 이주 고려인동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5. 카자흐스탄 우호교류 사업 추진

II. 세부사업 내용

1.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제작 및 극장 개봉

가. 목적 : 홍범도 장군의 독립전쟁 삶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형식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군조직법 개정을 성공시킨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광복 80주년 기념 2025년 8월 7일 극장 개봉 예정

- 장소 : 전국 영화 상영관

- 사업내용 : 독립유공자 후손, 역사학자, 군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모아 영화로 만들어 극장 개봉한다.

다. 시행방법 : 광복회 협업, 시민사회 후원으로 영화 제작한다.

2. 설, 추석 성묘

가. 목적 : 홍범도 장군 유족을 대신하여 명절 성묘를 한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1월 30일 / 2025년 10월 7일
- 장소 : 국립대전현충원
- 사업내용 : 회원들이 모여 홍범도 장군 묘역에 성묘를 한다.

다. 시행방법 : 남양홍씨문중, 기념사업회 대전모임 주관

3. 독립전쟁 기념공원 및 홍범도장군 기념관 타당성 조사

가. 목적 : 홍범도 장군의 업적과 독립전쟁사를 우리 역사의 유산으로 정확하게 연구, 기록, 보관, 전시하여 전 국민과 후세에 널리 선양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4월 - 11월
- 사업내용 :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독립전쟁 기념공원 및 홍범도장군기념관의 콘텐츠, 규모, 부지 후보지 등을 제시

다. 시행방법 : 전문 용역 고용

5. 국내 역사 탐방

가. 목적 : 국내 동학농민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며 조선말 선조들의 개혁정신과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 희생정신의 연계성을 찾고 기록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4월 25일~26일
- 장소 :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사업내용 : 회원 30명 참여

다. 시행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협조

6.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행사

가. 취지 :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을 광복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공동 개최하여 홍범도 장군과 무명 독립투사들의 업적과 애국심을 선양함.

광복회 선정 6월의 독립운동 “봉오동전투”를 대중과 함께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

광복 80주년 기념 이종찬 회장의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국군의 정통성)을 국민에 알림.

나. 주최 : 광복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다. 주관 :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애향본부, 생활법률문화연구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전주·전북모임

라. 후원 : 국가보훈부, 전북특별자치도

마. 일시 및 장소 : 2025년 6월 23일(월) 13:00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 그레이스홀

바. 참석 : 독립유공자 유족 및 지역 보훈단체 관련 인사 350여명

7. 광복 80주년 기념 제5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가. 목적 : 지난 4번의 대회를 이어 안정적인 대회 개최로 항일 독립무장투쟁과 애국심 선양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8월 말
- 장소 : 대구국제사격장
- 사업내용 : 사격 선수 및 가족, 관련 정부부처, 관련 자치단체, 광복회, 재향군인회, 사격 관련 단체, 일반 시민 등 연인원 약 10,000명 참여

다. 시행방법 : 기존 국제대회 시행방법에 준하여 대회 진행

라. 기타 : 홍범도 장군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독립무장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개최된 홍범도장군 사격대회는 2024년에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로 승격되면서 국위 선양을 꿈꾸는 전국 사격 유망주들의 국가대표 등용문으로 발돋움

8. 유해봉환 4주년 기념행사

가. 목적 : 2021년 유해봉환의 감동을 되새기며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과 희생을 기린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8월 18일
- 장소 : 국립대전현충원
- 사업내용 : 회원 등 참여

다. 시행방법 : 기념사업회 대전모임 주관

9. 해외 역사 탐방

가. 목적 : 홍범도 장군이 1937년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동포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카자흐스탄 지역을 직접 돌아보며,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기린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10월
- 장소 : 카자흐스탄
- 사업내용 : 회원 등 참여

다. 시행방법 :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크즐오르다 홍범도장군 유적지 탐방하고 기록 작성

10. 홍범도장군 순국 82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행사

가. 목적 : 홍범도 장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생애와 업적을 되새기고, 청산리전투 승전고를 널리 울리는 예술공연을 통해 애국심 고취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10월 25일
- 장 소 : 국립대전현충원
- 사업내용 : 회원 등 참여

다. 시행방법 : 기념사업회 대전모임 주관

11.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가. 목적

- 기념사업회는 역사는 바르게 기록되어야 잊혀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다는 사명으로 2010년부터 매년 홍범도 장군 및 주변 역사적 인물, 그리고 독립전쟁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에도 홍범도 장군, 주변 역사적 인물, 독립전쟁 관련 주제를 정하여 3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홍범도 장군의 학술적 연구를 이어가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11월
- 장 소 : 국회

- 사업내용 : 회원 등 참여

다. 시행방법 : 홍범도아카데미 주관

12. 한국 이주 고려인동포 노동·생활법률 서비스

가. 목적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대한고려인협회와 손을 잡고 한국 이주 고려인동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
- 오랜 준비 후, 2025년부터 노동·생활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 시작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1월-12월
- 장소 : 인천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
- 사업내용 : 우선 노동상담으로 임금체불, 생활법률상담으로 임차 보증금 사기에 집중

다. 시행방법 : 노동상담 담당 - 이황구 노무사, 소민안 노무사
생활법률상담 담당 - 김광중 변호사

13. 광복 80주년 우리 국군 바로세우기 특별강연

가. 목적 :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과 청년 그리고 우리 국군 바로세우기를 주제로 전국 순회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광복의 참된 의미와 현대 우리 국군의 참된 모습을 청년들에게 알린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3월-12월
- 장 소 : 대전, 춘천, 대구, 전주, 서울, 용인 등
- 사업내용 : 광복회 이종찬 회장님 강연

다. 시행방법 : 광복회와 협조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1

육사 독립영웅 흉상 재배치 전면 백지화 기자회견



국민 여론의 반대로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밖 이전이 어려워지자, 2024년 11월 국방부가 육사 내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육사 내 사람이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구석으로 흉상을 옮겨서, 육사생도들로부터 독립전쟁 영웅들을 분리하려는 반헌법적이고 매국적인 꼼수일 뿐이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11월 6일,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들과 함께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 재배치는 “우리 군의 정통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친일 뉴라이트’의 흉계”라며 흉상들을 한 치도 옮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박홍근 기념사업회 이사장, 부승찬 국회의원,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이 발언하며 흉상 재배치 백지화 촉구에 힘을 보냈다.

이에 덧붙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의 책임자의 사과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2

홍범도 장군 순국 81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 학술회의



기념사업회는 2010년부터 매년 청산리전투 전승을 기념하여 홍범도 장군과 독립전쟁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년에는 2021년부터 해 오던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이라는 제목 아래에 구춘선, 서일, 김좌진에 대한 논문 발표가 있었다.

박홍근 이사장과 이사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역사를 전공하는 젊은 학생들이 학술회의를 참관하여 역사를 학자의 깊고 넓은 시야로 엮으면서 의미와 배울 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논문은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 : 2024년 11월 15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사회: 반 병 료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홍범도아카데미 원장)

제 1 발표 : 대한국민회 구춘선의 독립전쟁 : 이동휘와 홍범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발표자 : 이숙화 (한국의국어대학교 초빙교수)

- 토론자 : 양수연 (전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제 2 발표주제 : 홍범도의 북간도(중국 연변) 지역 독립운동과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

- 발표자 : 장세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 토론자 : 김병기 (전 광복회 학술원장)

제 3 발표주제 : 백야 김좌진의 독립운동 쟁점과 과제

- 발표자 : 이성우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 토론자 : 김용달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3

12·3 내란에 따른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참석

2023년 8월 국방부의 육사 독립전쟁 영웅 홍상 철거 시도는 막아냈지만, 이는 단순 홍상 철거의 문제가 아니라 뉴라이트 세력의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기 위한 역사전쟁이었다. 이에 국군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이 역사전쟁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국회 및 독립운동 관련 단체, 역사 및 군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2024년 10월,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작업을 하였다. 1907년 해산된 대한제국군은 의병에 합류하였고, 그 이후 임시정부의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해방 이후 국군으로 그 정통성이 이어져움을 명백히 하고, 헌법에 따라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임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12월 3일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위하여 군이 국민을 향해 총을 들게 하였다. 이에 우리 기념사업회는 다시는 군에 의한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의도와 광화문 집회, 그리고 한남동 1인시위에 참석하며 윤석열 탄핵 촉구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04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4월 25일-26일, 전주시역 이사들의 도움으로 정음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답사하였다. 박홍근 이사장 등 35명이 참여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봉건신분사회에 대한 단순한 항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려는 사상과 통치력을 갖춘 조직을 구축한 혁명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후기가 있었다. 특히, 척양척왜의 반외세 운동이 20여 년 후 일본제국주의에 맞서는 거족적인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투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 가운데 해주의 동학 접주 김구의 상해 임시정부, 해월 최시형의 아들 최동희의 고려혁명당 등 많은 독립운동가, 혁명가를 배출하는 토대를 이루고, 오늘의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져 온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5

2024 송년회



12월 19일에 열린 2024년 송년회는 역대 이사장이 모두 함께하신 뜻깊은 자리였다. 여기에 대한고려인협회 그리고 기념사업회와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 2024년 기념사업회 활동내용을 돌아보고 향후 함께 할 사업과 작품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6

2025 설 홍범도 장군 성묘



1월 30일, 홍재구 남양홍씨 대종중 중앙중회 회장과 대전회원들이 대전국립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성묘를 드렸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7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기자회견



3월 15일 광복회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이종찬 광복회장, 2대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장, 3대 이사장 박홍근 국회의원, 그리고, 영화 연출을 맡은 문승욱 감독과 내레이션을 맡은 조진웅 배우가 함께했다.

영화 <독립군>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통해 대한민국 무장 독립투쟁사의 궤적을 조명하고, 오늘날 국군의 정체성을 재고하는 영화이며, 8월 7일 개봉 예정이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8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 거주 고려인 학생 특별강연



2월 25일, 우원식 의장은 국내 거주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을 국회로 초청해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장은 "저의 외조부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도 강제 이주에 맞서 싸운 고려인이기 때문에 저 역시 고려인의 후손"이라며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의 아픔 속에서도 그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고려인의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이며, 국회의장으로서 고려인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강에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박홍근 이사장,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이 특강은 2024년 10월 우원식 의장의 카자흐스탄 국립크즐오르다대학교 특별강연에 큰 감명을 받은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이 국내 거주 고려인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09

김구 선생 묘역 참배



박홍근 이사장은 3월 1일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제작팀과 조진웅 배우와 함께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아 참배하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10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 정체성 특별강연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회는 우리 국군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을 돌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정신 그리고 청년'을 주제로 이종찬 회장님의 강연을 열고 있다. 그 첫 강연이 3월 8일 대전에서 열렸고, 200명 이상의 청년들이 헌법 전문에 따라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단절되지 않고 영속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안고 돌아갔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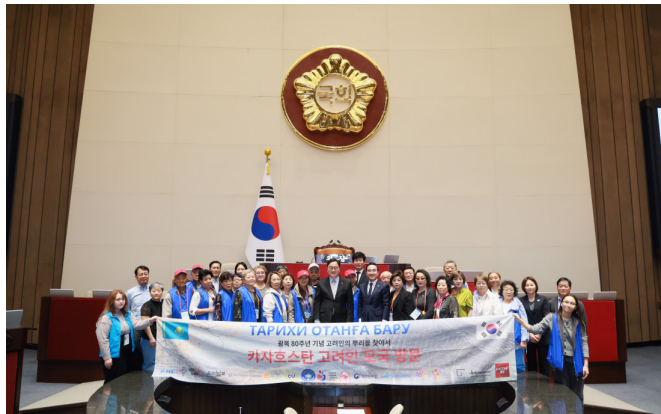
한국 이주 고려인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기념사업회는 대한고려인협회와 손을 잡고 한국 이주 고려인동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인천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에서 “노동·생활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고, 우선 노동상담으로 임금체불, 생활법률상담으로 임차보증금 사기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노동상담은 이항구 노무사, 소민안 노무사께서, 생활법률상담은 김광중 변호사께서 담당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12

카자흐스탄 원로 고려인 국회의장 방문



광복 8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에서 원로 고려인 20분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분들을 국회로 초청하여 함께 오찬을 하며 한 민족으로서의 정을 나누었다.

회원 동정



박홍근 이사장

박홍근 이사장은 불법 계엄에 맞서 7일간 비상단식농성에 나섰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민주헌정 수호 도보행진'을 주도하는 등 윤석열 파면에 앞장섰다. 이어진 조기 대선에서 <후보 직속 특임소통단장>,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 <골목골목선대위 서울시위원장> 등 주요 역할을 맡아 맹활약했다.



홍재구 이사

홍재구 이사(남양홍씨 대중중 중앙총회 회장)는 남양홍문의 자랑인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홍범도장 군기념사업회에 남다른 애착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총회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남양홍씨 지방총회는 11개 시·도총회가 있으며 그 산하에 시·군·구 총회가 있다. 중앙총회 회장은 시·도총회 총회 등 큰 행사에는 거의 모두 참석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종인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중앙총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지난 5월 4일에는 대구화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대구화수회는 남양홍씨 지방총회 중 가장 먼저 창설한 총회이다. 1954년 6.25 전란 중에 자유 대한의 마지막 보루였던 대구로 피난 내려온 남양홍씨 종친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란 와중에 창설하였다. 대구화수회 3대 강령 중에 患難相求(환란상구)라는 조항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 선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5월 5일에는 제주도 문중 총회 및 춘향제에 참석하였다. 제주도 조천읍에 있는 남양홍씨 제주도 入島(입도) 선조들을 배향하고 있는 보문각에서 春享祭(춘향제)를 모시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제주도 종인들을 격려하였다. 남양홍씨가 제주도에 入島(입도)한 때는 麗末鮮初(여말선초) 격변기 때이다. 고려 공민왕 때 門下侍中(문하시중)이었던 홍언박의 孫子(손자)인 允康(윤강)할아버지가 1402년에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입도 경위는 고려가 망하고 이씨 조선이 들어서면서 고려말의 최대 閥族(벌족)이었던 남양홍씨를 핍박하기 시작하자 남양홍씨들은 被禍(피화)를 벗어나기 위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允康(윤강)할아버지는 멀리 제주도까지 건너가 살게 되었다.

회원 동정



홍성중 이사

홍성중 이사(남양홍씨 남양군파 회장)는 조선조 숙종 시대 이조판서를 지낸 북정 홍처량공의 원형정이 4권의 문집을 한글로 번역 출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명우 이사

이명우 이사(전 평안남도 지사)는 2024년 12월 12일 남산 문학의집에서 개최한 문학인의 밤 행사에서 2024년도 수필부문 신인문학상을 받았다.



채예진 이사

채예진 이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디어사람 협동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 문화 관련 자료를 기증하여 문제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김광중 이사

김광중 이사(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리걸타임즈 2024 올해의 변호사(금융소송)로 선정되었다. 김광중 변호사는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배상 손배소를 많이 다루는 금융투자 피해 집단소송 전문가로 유명하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2007년부터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금융투자 피해에 관련된 가장 많은 집단소송을 수행한, 가장 많은 승소판결을 받아낸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김선엽 이사

김선엽 이사(오산대학교 보컬K-POP컨텐츠학과 겸임교수)는 지난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실용 무용 안무적작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무용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우진 이사

김우진 이사(K잡스 대표이사)는 2월 25일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제2회 한국HR서비스산업대상'에서 산업선도 부분 상을 수상하였다.



김인관 이사

김인관 이사는 KT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국내외 고려인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설, 추석 등 절기별 생필품을 전국 1천명 이상의 국내 고려인 가정으로 비대면 배송하는 '희망버스', 고려인 아동들이 한국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T IT 한글교실'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안산, 광주에 거주하는 200명 이상의 아동들이 KT IT 교육 및 코딩 학습과 한국 문화체험 나들이에 함께 하였다. 또한, 임직원 봉사단이 직접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취약 고려인 가구의 집수리 등 환경개선공사와 생필품 나누기, 고려인 위로잔치, 탈디코르간 폴리텍컬리지 내 'IT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는 글로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 노력을 통해 김인관 이사는 국내외 고려인들을 위한 물질적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하나의 민족적 뿌리라는 공감대를 나눔으로써 고려인들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함께 어우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회원 동정



문현군 이사

문현군 이사(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재외한국문화원지부 위원장)는 4월 25일 문체부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노사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재외문화지원부는 세계 30개여 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들의 근무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24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문체부와 9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합리적인 인사·임금 체계 마련, 남녀 고용 평등 보호 등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혼식 소식



반병률 이사(홍범도아카데미 원장)의 차남이 2024년 12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김인관 이사(KT노조 위원장)의 딸이 2월 22일 이태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오세중 이사(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의 장녀가 3월 16일 양재 AT포레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광균 이사((주)미르나인 대표)의 아들이 5월 10일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남우기 이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의 아들이 5월 24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